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44-45a)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8월 1일 (토) 제 154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흑백갈등, 용서와 사랑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

애틀랜틱, 찰스턴교회 총격사건 후 흑인교회 연속방화사건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희망 보도

미국사회에서의 인종 문제는 분열을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다. 한마디로, 최근 찰스턴 흑인교회 총가 난사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으로, 특히 1996년에는 남부 지역의 많은 흑인교회들이 백인극렬주의자들의 연속된 방화들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 당시 연방 시민권 침해 담당 검사였던 대벌 패트릭은 "미 전역에서 인종 분리는 극단이다"라고 방화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뿌리가 너무나 깊은 흑백간의 인종 갈등이 바로 방화 사건들의 주된 범행 동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인근 주에 있는 5개의 교회에서 연속 화재가 발생했다. 남부빈곤법센터에 따르면 이중 적어도 3개 교회에서의 화재는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 순으로 21일에 테네시 주 녹스빌, 24일에는 조지아 주 메이컨, 24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과 테네시 주 깁슨 카운티, 26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워런빌과 플로리다 주 텔러해시의 흑인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부빈곤법센터는 화재가 일어난 곳이 모두 흑인 교회인데다 화재가 모두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연속 화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이 연속 방화가 명확하게 증오범죄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1956년 이후 적어도 91곳의 흑인교회가 증오방화의 타깃이 되었다. 미국 잡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미국에서 교회 방화의 역사는 남북전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그래도 이번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사건 이후, 미국사회의 고질병과 같은 흑백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고 보도한다(How Much Has Changed Since the Birmingham Church Bombing?:Is the nation getting any better at dealing with violence against black houses of worship?).

흑백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바로 1861-1865년 있었던 남북전쟁이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에서 일할 노예가 필요했고, 독립전쟁 이전부터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흑인이 남부의 목화밭에서 힘든 노예생활을 했다. 당시 미국 남부지역 인구 900만 명 중 흑인 노예는 무려 400만 명에 달했다.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노예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간된 해리엇 비처 스토의 유명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흑인 노예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고,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북전쟁이 터졌다.

북부의 승리로 끝난 남북전쟁 뒤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했다. 남북전쟁 직후 링컨은 연극 관람 도중 남부 출신 배우에 의해 암살당했지만, 링컨이 남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메시지는 인종차별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미국의 가치로 계승됐다.

미국사회에서 인종문제는 오랜 세월 고질적인 문제로 다뤄져왔으나 이번 찰스턴교회 총격사건의 신속한 기소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교회공동체를 세웠고, 이러한 교회들은 남부 지역에서 역사적인 예배당들로 보존되고 기억될 정도로, 성장했다.

〈3면으로 계속〉

IS, 이란-사우디 종파싸움 극복으로 해결!

허핑턴포스트, IS 최종 격퇴방안 소개

중동에서는 수니파 대 시아파의 종파 간 긴장과 폭력이 극심하고, 수니파 테러집단 ISIS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양측, 특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종파주의를 부추기는 걸 막지 못하면 ISIS를 무찌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란과 사우디의 종파싸움의 부채질을 막지 못하면 IS를 무찌를 수 없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제안한다(We Cannot Defeat ISIS Until We Stop Iran and Saudi From Pouring Fuel on the Sectarian Fire).

수니파-시아파 종파주의 격돌금지 "안보전략만으론 부족...교육커리큘럼, TV, 소셜미디어 등 종합적 해결책 필요"

폭력적인 지하드 수니파 과격주의자 단체인 알 카에다와 ISIS에 의해 고통 받은 여러 종파들로는 시아파, 크리스천, 알라위파, 수니파, 쿠르드, 수피교도, 예지디 등이 있다. IS는 알라위파와 시아파 압제자들이 수니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싸우게 한다. IS의 존재가 한정적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곳에서는 IS는 추종자들에게 자국에서 공격을 하라고 권한다. IS는 최근 27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친 쿠웨이트 시아파 모스크 폭파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IS는 '실패한 국가들인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내에서 세력을 확장한다'에서 'IS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반IS연합체 내의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로 큰 전략 변화를 도모하는 듯하다. IS는 연합체 내의 중동 국가들 중에는 내부에 자신들의 지원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자국 내에서 공격을 하리라 믿고 있다.

IS는 소셜 미디어와 프로파간다 잡지 '다비크'를 통해 세뇌하는데 대량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IS가 연합체 내 국가들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그 국가들이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뛰어날 수도 있다. 중동의 환경은 IS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평균 청년 실업률이 13.9%인데 반해 아랍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23.2%로 세계 최고다.

게다가 수년 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아랍권 매체인 알 자지라와 알 아라비야는 아드난 알-아루르 같은 종파주의 수니파 성직자들을 출연시켰다. 알-아루르는 '(시아파의 한 갈래인 알라위파를) 고기 가는 기계로 다져서 살을 개들에게 먹이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독일에서 잠깐 구류된 적이 있었던 알 자지라의 아흐메드 만수르는 최근 알 카에다 분파인 알-누르사의 지도자 아부 무하마드 알 줄라니를 황금시간대 TV에 출연시켰다. 인터뷰에서 줄라니는 시리아의 수니파가 아닌 소수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교리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모스크 공격사건들이 잇달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시아파 신도들을 '거부파'라고 부르며 규탄하는 과격한 수니파 성직자들의 수는 줄지 않았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즐거움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난 생각 깊은 사람... 네가 알아주기 원해"

월드미션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원서 모집 마감: 2015년 8월 7일(금)

신학과 • 기독교 상담학과 • 음악과 • 원격 프로그램

온캠퍼스 모집학과

▶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
- 기독교 상담학과(BACC)

▶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박사과정
- 목회학과(D.Min. / 유학생 I-20 발급)

▶ 수료증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FCC)
  - 총 18학점 (6과목)
- 유아교육 교사(ECE)
  - 총 15학점 (가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ECE)
  - 총 18학점 (가주 자격증)
- 기독교 상담 교실(CCC)
  - 매주 1회 15주 교육

원격 프로그램 모집학과

▶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기독교 상담학과(BACC)

▶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신학과(MAT)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박사과정
- 목회학과(D.Min.)

▶ 수료증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FCC)
  - 총 18학점 (6과목)
- 유아교육 교사(ECE)
  - 총 15학점 (가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ECE)
  - 총 18학점 (가주 자격증)

정부 보조
- 펠 그랜트(Pell Grant)
-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 갚을 필요가 없음.

학생 융자
- 학생 융자는 모든(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
-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

장학 혜택
- 목회자, 선교사, 사모 장학금
- 본교 졸업생 대학원 진학시 특별 장학금

● 미 군목 장교 지원 ● 미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 · 입학 ●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학비 지원

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송정명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선 박사 Ph.D., D.Mi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입학문의
213.388.1000 Ext. 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Vermont Shatto Pl. 6th St. 월드미션대학교

시 론

"종교적 표퓰리즘(Religious Populism)을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난 2010년 중반부터 나타난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는 또 하나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중심에 '신(神)들의 나라'라 불리는 그리스가 있다. 그리스는 2010년 하반기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최근 채무 불이행(default)의 위기를 맞아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제안을 거절했으나 그 이후 유럽연합과의 극적인 타협으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안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자부하던 그리스가 왜 이처럼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한 마디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더불어 우선 눈앞에 당장의 이득에만 몰두한 복지 표퓰리즘(Welfare Populism)정책의 결과로 요약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과거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제1의 부자국가였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재건에 힘쓰고 있던 미국과 영국, 독일과 달리 무섭도록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부호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1981년 취임한 사회당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eas Papandreou) 총리 정권에 이르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내줄 것"을 공표하며, 전 계층을 위한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며,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대폭 올리고, 함부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이 당장 좋아하는 대로 모든 정책기조를 급진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는 실력이 미진하여 대학진학에 실패한 자들을 위해 국비로 해외유학을 지원해주는 정책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인기영합주의는 선거철만 되면 공짜공약을 남발하는 사태로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리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 상황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세계 정치 경제사의 전반적인 트렌드다.

그런데 이러한 표퓰리즘적 형태는 비단 한 국가의 정치, 경제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오늘날 성경적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고 이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야 할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인기영합주의가 스며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세속적 마케팅주의를 통한 교회성장주의, 기복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한 성공지상주의 등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혹은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인 토론토블레싱, 빈야드, 최근에는 신사도운동, 역사적 예수 세미나(Historical Jesus Semina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나라 복음운동을 왜곡 혹은 세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 성경적인 종교 현상의 이면에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 내면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나 신비주의적 욕망에 부응하려는 종교적 표퓰리즘(Religious Populism)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 때 '열린 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예배들이 시도되어 설교대신 찬양과 드라마가 주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앞에 인간적인 수사학적 용어들이 어줍잖은 것이요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린'이란 말이 붙으면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신비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내면에는 인간 욕망에 근거한 예배 표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각에서는 주일예배의 대체방식으로 토요예배 등을 신학적 검증 없이 선호하고 있다. 주일(the Lord's Day)이란 개념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요일(Sunday)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성경 신학적인 예수 부활의 구속사적 연속성(Redemptive Continuation)을 영원토록 함의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 즉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democracy)도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유래가 되는 '데모스(demos)' 역시 그리스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사회문화적 기능면에서 교회의 형태는 민주주의적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대중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중에 근거한 종교 표퓰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목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타락한 인간의 세속적 욕망에 근거한 종교 표퓰리즘은 영적 독배나 다름없다. 오늘날 교회가 마셔야 할 잔은 세속적 표퓰리즘의 독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기쁨, 감사, 섬김의 축배이다.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즐거움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WSJ, 아동서적 관련 칼럼리스트 M. 콕스 거든 낭독의 즐거움 소개

자녀에게 읽고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일도 드물다. 그러한 노력은 정말 큰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던 일을 어린 시절의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읽는 일은 그 자체도 즐겁지만, 그 결과 역시 기쁨을 준다. 특히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 영성의 토양이 되기에 참으로 좋은 양육 방법으로도 실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주말 판 아동서적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칼럼리스트, 메간 콕스 거든(Meghan Cox Gurdon)은 집안에서 들리는 낭독이야말로 가족이 친밀감을 같이 공유하는 순간이 되며,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에게 첨단기술 대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한다(The Great Gift of Reading Aloud: To curl up with children and a good book has long been one of the great civilizing practices of domestic life, an almost magical entry point to the larger world of literature).

처음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던 날,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21년 전 숨이 턱턱 막히게 더웠던 어느 7월 오후, 우리는 도쿄의 한 산부인과에서 퇴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멍한 와중에 한 가지 생각만 분명히 들었다. 우리 부부가 미리 준비한 아기 방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아기가 퇴원하기 전에 내가 직접 칠한 흔들의자에 아기를 가만히 앉혔다. 나는 동화책 한 권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외동딸을 둔 홀아비가 있었습니다. 홀아비는 딸 둘을 둔 과부와 재혼했습니다. 세 모녀는 시기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해가 창문 너머로 기울었다. 내 목소리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고 이상하게 들렸다.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듣고 있기는 한 걸까? 삽화도 보여줬어야 했나? 갑자기 모든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면서 엉엉 울어버렸다. 이후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는 점점 더 나아졌다. 그리고 솔직히 갓난아기에게 '신데렐라'를 읽어주다니.

책 읽어주기는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내 친구 리사 월핑거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리사는 나보다 몇 년 일찍 첫째를 낳았다.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정생활일지라도 즐거운 낭독 시간은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리사다. 리사는 아들 네 명에게 거의 매일 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길게 책을 읽어줬다.

리사의 아들들이 아직 한참 어렸을 때 메인 주에 있는 리사의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던 일이 생각난다.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 리사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층으로 사라졌다. 한참이 지나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자 누군가가 괜찮냐고 리사의 남편에게 물어봤다.

"괜찮아요.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중이에요." 식사에 초대한 안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느꼈던 유감은 놀라운 감탄으로 바뀌었다. 나도 아이가 생기면 리사처럼 꼭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아이들 다섯 명에게 그 결심을 지켰다. 일본에서 첫째에게 처음으로 책을 읽어줬던 웃기고도 슬펐던 경험을 한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책을 읽어줬다. 책 읽어주기는 우리 가족의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바빠져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기 전에 아이들에게 원작을 먼저 읽어주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서, 아이들의 넋을 빼놓는 IT기술 속으로 유년기가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것은 오래 전부터 가정생활에서 가장 세련된 관행이었다. 따뜻한 동료애를 배양하고, 가족끼리만 통하는 농담을 주고받고, 문화적 이해를 공유하는 멋진 방법이다.

마리아 타타르 하버드 교수는 출판 매체와 전자 매체가 야간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하기 이전인 중세 시대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관행에서 책 읽어주기가 유래했다고 썼다.

성인과 아이가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고 단 한 명의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는 광경은 현대에 와서는 진기한 풍습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순간인지!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만의 가상현실로 몰입해버리는 IT기기와 달리, 훌륭한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친밀하게 이어준다.

〈16면으로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주면 긴장을 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따뜻함과 빛 속에서 공존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가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다.

공모전 참가대상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등이며 참가방법은 추천도서 6권 중 한권을 선택해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추천도서는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입양가족, 홍성사), "레디컬 투게더"(데이핏 플랫 저, 두란노), "믿음이란 무엇인가"(일리스터 맥그래시 저, 성서유니온), "왕의 재정"(김미진 저, 규장),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데이비스 키네먼 저, 국제제자훈련원), "5가지 사랑의 언어"(게리 채프만 저, 생명의 말씀사)이다.

독후감 분량은 레터 용지 혹은 A4 용지 3장 분량이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글간격은 아래한글 160%, MS 워드 2.0으로 작성해 오는 10월 15일(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 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상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5백 달러), 우수상 2명(3백 달러), 장려상 3명(2백 달러)이다.

수상자는 11월초에 발표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초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흑백갈등, 용서와 사랑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백인 극렬주의자들은 이러한 흑인 교회에 방화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했고, 흑인 커뮤니티에 일종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다 줄 것이다.

따라서 흑인 커뮤니티는 찰스턴 교회 총격사건을 바로 1963년에 일어난 알라바마 16가 침례교회 방화 사건의 연장선으로 이해한다. KKK 단원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4명의 어린 흑인 소녀들이 살해당했고, 미 전역은 충격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보통 미국인들과는 달리 4명의 KKK 단원들은 알라마마 시에 있는 흑인교회들에 더 많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 알라바마 시의 별명은 한동안 우스꽝스러운 이름(Bombingham)을 갖게 됐다.

그러나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알라바마에 폭탄을 설치한 4명의 KKK 단원들은 정치적인 이유와 백인들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관대함(?)때문에, 무려 40년이 지난 2002년에 기소됐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진무구한 4명의 흑인 소녀들이 희생된 사건의 용의자들은 묵인된 상태로 40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살아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미국 사회의 묵인 때문에 KKK단으로 불리는 백인 자경단원들이 흑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법원은 대부분 백인의 편을 들어줬다. 흑인해방운동가로 유명한 말콤 X는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변호사"라고 답했지만,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흑인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였다.

2012년 2월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짐머맨이 비무장한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짐머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려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묵인과 침묵"이라는 백인들의 관행 때문에, 퍼거슨 사태 역시 희생된 흑인보다는 백인 경찰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0년간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피해자 가운데 절반이 흑인이다. 하지만 처형된 살인범 가운데 백인을 죽인 사람은 85%인 반면 흑인을 죽인 사람은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의 인권이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찰스턴 교회 총격사건은 이례적으로 시, 주 그리고 연방정부가 동시에 관심을 갖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곧이어 범인 딜란을 검거하고 '혐오범죄'로 기소해 이제는 구형만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건 해결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돋보인다. 그래서 아틀랜틱은 찰스턴 흑인 교회 사건으로 인해 흑백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론으로, 화재를 입은 교회 목사 매닉스 킨지는 지역 뉴스에 출연해 "증오범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범인은 이미 용서했다"며 흑인교회가 표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흑백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희생양이 되는 흑인 커뮤니티의 용서가 선행된다. 이러한 용서는 고난을 받은 흑인 지역사회의 경험에서 녹아나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바로 흑백갈등 해소의 열쇠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IS, 이란-사우디 종파싸움 극복으로 해결!

〈1면에서 계속〉

악명 높은 종파주의 트위터 계정 중에는 알 웨살 텔레비전 계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시아파를 상대로 선동하며 시아파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 배울 기회를 주겠다고 주장한다. 5월에 사우디 모스크가 몇 차례 공격 받은 뒤, 피해자의 친척이 알 웨살 텔레비전의 선동에 대해 고위 왕자 한 명에게 따진 적도 있다. 알 웨살 텔레비전은 지금도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사우디의 초등 및 중등 교육 커리큘럼은 시아파 뿐 아니라 와하브를 따르지 않는 모든 소수파를 '일탈적'이고 '다신론자'들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내용으로 점철돼있다.

한편, 이 지역에서 시아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란 역시 이 종파주의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위험한 역을 맡아왔다. 알리 리자 가푸리에 의하면 수니파들은 테헤란에서 모스크를 짓는 것이 금지돼 있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없다. 이것은 규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란의 반 수니파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은 갈수록 심해져,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최근에 이란 정부에게 단속을 요구했다. 이란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시라지 운동과 관련된 반 수니파 종파주의 채널을 최고 17개 폐지했다고 한다.

이란이 종파주의 대리 단체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대중 동원 단체, 예멘의 후티스와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를 계속 지원해옴으로 중동 지역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은 더 심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후티스와 벌이고 있는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안보만을 생각하는 전략은 IS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교육 커리큘럼과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동까지 공략하는 보다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제로섬 게임 접근을 유지할 경우, 이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널리 퍼진 동영상에서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 자파르 알 이브라히미는 경고한다. "종파주의는 원자폭탄보다 나쁘다." 이를 생각할 때 세상에는 종파주의 확산 중지 조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자기관리(2)-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자기관리

'마음을 청결하게, 몸가짐은 단정하게, 입은 무겁게.' 이것은 한평생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자세였다. 푸석거리는 머리로 강단이나 사람 앞에 서지 않았고, 유행을 따라 남성복장이 캐주얼화해도 집 밖에선 넥타이를 푼 일이 없었다. 양복 정장은 대부분 검정 계통의 색상을 선택했고 넥타이도 시뻘건 색깔은 피했다. 그리고 늘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고 말을 고르고 삼갔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활용하는 피조물이다. 언어와 문자는 전달과 표현의 매체가 되어 개인 대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소통을 이룬다. 그러나 말이 많고 행동이 수다스러우면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 특히 목회자가 지나치게 말이 많다든지, 비아냥대는 말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습관처럼 늘어놓는다면 신뢰받기 힘들다. '입이 가볍다' 보다는 '무겁다'가 좋고, '말은 잘한다'보다는 '책임진다'가 좋다. '서두른다'보다는 '신중하다'가 좋고, '경거망동한다'보다는 '신사도를 안다'가 훨씬 좋다.

문제는 '좋다'라는 평가나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뒤틀린 언행 때문에 목회가 바람을 타기보다는 늘 삼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 의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보니 '우리 목사는 차갑다, 냉정하다, 접근이 어렵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목사와 교인 관계는 멀어도 나쁘고 밀착도 좋지 않다. 호칭도 선별해야 한다. 목사가 남자 교인을 형님, 동생 할 수도 있고, 여자 교인은 누님, 동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호칭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형제요 자매지만 그러나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옳고 교인은 교인의 자리에 서야 질서가 망가지지 않는다.

요단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멘 제사장과 뒤따르는 사람들의 거리는 2천 규빗이었다. 뜻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여자 교인들과의 경우 2천 규빗도 훨씬 넘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 흔한 악수도 여자 교인이 먼저 손을 내밀 때로 국한했고 포옹은 일절 피했다.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유의하고 명심해야 한다.

매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주일예배와 행사, 교회학교 진행 등을 검토하는 모임을 갖곤 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목회 전반에 관한 자세를 고쳐 세우는 얘기들을 주고받았다. 일례를 들면 운전석 옆자리는 '오너드라이버일 경우 부인 좌석이다. 부득이한 경우 목사 부인이 심방에 함께하지 못하고 여권사나 구역장이 동행하게 된다. 동행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뒷좌석에 태운다. 세 사람일 때도 옆좌석은 비워둔다. 그리고 네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운전석 옆 자리는 제일 나이 많은 권사가 자리 잡도록 한다', '여자 교인과의 사적인 통화는 삼간다', '오해받을 만한 만남은 갖기 않는다' 등 자기관리에 관한 지침을 주곤 했다.

때로 식사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목사님, 뭐 드실래요?"라고 물으면 "저는 설렁탕을 좋아합니다. 설렁탕 먹겠습니다." "아니지요. 모처럼 대접인데 좋을 걸로 드시지요." "아닙니다. 설렁탕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품위를 떨구지 말자는 의도였다. 대접하는 사람이 주머니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갈비를 찾는다든지 스테이크 메뉴를 주문한다면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대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교인들과 상담을 하게 된다. 필자 역시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과 상담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가운데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인들과의 상담 내용, 특히 속 깊은 상담을 발설한 일이 없다. 하루 만에 상담 내용이 광포된다면 누가 찾아올 것이며 상담을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망가진 신뢰의 탑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목사의 자기관리는 두 방향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다. 그리고 신앙, 인격, 품위, 언행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무개도 설교도 목회도 잘하는데 버릇이 없다, 아무개는 설교도 목회도 잘하는데 버릇이 없다, 아무개는 도도하고 목이 곧다, 아무개는 인사성이 없다 라는 평을 듣는 것은 목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세 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했다. 어머니가 필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교훈 가운데 '원수 맺지 말라, 정직해라, 욕먹을 짓 하지 말라'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 세 가지를 늘 머리에 입력시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정신과 삶의 철학을 이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장도 자기관리에 실패하면 내려앉아야 한다. 목사도 자기관리가 부실하고 마무리가 서툴면 중도하차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목회 기간이 길었는가, 짧았는가? 대형교회인가, 소형교회인가를 떠나 사람다운 사람, 목사다운 목사로서 자아를 통제하고 관리했다면, 자아 발전을 위해 영육 간에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쏟았다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는 정도 목회의 길을 걸었다고 손을 들어준다면, 행복한 목회자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2015 아틀란타 연합교회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
주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목회 리더십!

■ 일 시 : 2015년 9월 28일(월)-30일(수)
■ 장 소 : 아틀란타 연합교회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 위기를 극복하는 목회 리더십!
⇨ 새 시대의 혁신적인 목회 리더십!
⇨ 말씀과 성령 목회를 통한 부흥의 리더십!
⇨ 선교적인 교회로 갱신하는 선교 목회 리더십!

[2015년 목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1. 자신의 인생주기를 통한 목회 리더십 회고, 평가 및 진단
2. 위기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목회 리더십의 훈련
3. 새 시대 목회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목회론
4. 성령과 말씀 목회가 병존하는 부흥의 교회
5. 강력한 선교적 교회로 체질 개선하는 선교 리더십, 본 교회 임상사례 공개
6. 145개의 평신도 사역팀 및 140개의 셀그룹 공동체의 역동성 및 리더십 훈련
7. 평범한 어머니들을 강력한 기도의 영성 공동체로 바꾸어 나가는 사역
8. 인생 100세를 열어가는 실버 사역의 창조적인 목회 기획
9. 다니엘 플랜을 통한 전인적인 건강 목회
10. '생수의 강' 이라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통한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사역 노하우

■ 강 사 : 정인수 담임목사 외 본 교회 목회팀
■ 참가대상 : 목회 리더십의 개발과 교회 사역 구조의 혁신을 시도하는 목회자와 사모님
■ 회 비 : 일인당 60불 (숙식 및 정인수 목사 리더십 강의 요약집 및 본 교회 전문 목회 자료집 무료 제공)
■ 신청문의 : 조무제 목사 (Tel. 770-374-0617)
e-mail: silverministry@gmail.com
김윤수 간사 (Tel. 770.939.4673 ext.113)
e-mail: kcpcyskim@hotmail.com
■ 신청마감 : 2015년 9월 19일(토) 40명 선착순 받습니다.

〈 교재 〉
1. 정인수 목사 리더십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 리더십 (두란노)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 (두란노)
2. 정인수 목사 리더십 요약집 (무료제공)
3. 아틀란타 연합교회 전문 목회 자료집 (무료제공)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펭귄과 신앙생활

수년 전에 딸과 함께 '펭귄, 위대한 모험'(March of the Penguins)이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끼를 낳고 돌보는지를 보여준 신비스럽고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추운 남극에 사는 펭귄은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펭귄은 짝짓기 계절이 오면 각자의 바다를 떠나 자신이 태어났던 장소로 신비롭게도, 같은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암컷과 수컷은 일부일처로 짝을 지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은 암컷은 그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 자신과 태어날 새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떠납니다. 수컷은 암컷이 떠난 후 3-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을 품고 지냅니다. 이 과정 동안 수컷은 몸 안에 저장되었던 음식으로만 생존하며, 몸무게는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수컷은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알을 품고 견디다가 알이 부화하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드디어 암컷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면 암컷이 새끼를 양육하고 수컷은 먹이를 구하러 떠납니다. 새끼들이 자라서 독립하게 되면 펭귄들은 다음 짝짓기 계절이 되어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다시 바다로 나아가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펭귄이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새끼를 양육하는 여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펭귄은 항상 떼를 지어 다닙니다. 솔로(solo)로는 무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들은 몸과 몸을 맞대어 한 덩어리를 이룸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추위를 이겨내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겨내려면 함께 모여,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먼저 먹어야 남을 살린다.' 말씀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펭귄이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미리 많이 먹어두어야 합니다. 종족보존이란 중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에 음식을 미리 저장해야 합니다. 미리, 그리고 많이 먹어둔 펭귄만이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새끼에게도 충분히 먹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평소에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주위의 영혼들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셋째, '새끼 펭귄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다.'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암컷은 새끼를 수컷에게 맡기고 먹이를 찾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견딥니다.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추운 겨울과 배고픔을 감당하며 인내로 알을 품습니다. 암컷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며 기다립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도 인내로 기다려야합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도 인내가 필수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생명을 낳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끼 펭귄은 혼자 생존할 수 없다.' 희생의 중요성입니다. 알이 부화하여 새끼 펭귄이 태어나기 위하여 부모 펭귄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추위, 바다의 천적들…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있듯이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아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펭귄의 다음 세대에 대한 희생과 인내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의 공동체, 훈련 공동체 등에 속해서 제자훈련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 말씀을 먹으세요.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세요.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세요. 펭귄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푸/ 른/ 초/ 장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예수가 희망이다
(요한복음 5:1-9)

예수님이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희망 없는 자에게도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희망이셨다.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병을 고치려고 수없는 의사를 찾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을 것이다. 아마 그에게 있는 재산도 다 탕진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고침 받는다는 말을 듣고 베데스다 못에 찾아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감으로 그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 그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그에게도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아무리 중증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오래 된 문제를 가진 자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아무리 비뚤어진 성격이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거짓말,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고질화 되어서 성격화 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시다.

1.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라.

6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가져라.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다.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낫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38년 된 병자도 희망을 잃어버려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희망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이다. 오래 병을 앓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소망을 잃는 것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지, 이렇게 살다가는 것이지 뭐…" 하면서 희망을 접는다. 희망을 접는 것은 믿음을 접는 것이다.

병만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나 습관의 문제나 경제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오랜 세월 그런 삶에 굳어져서 희망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난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 비뚤어진 성품 그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무시하는 죄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권세 있게 화살 같이 박혔다. "내가 나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희망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의 희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날 것이다. "당신도 낫기를 원하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희망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베데스다 못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베데스다 못에 희망을 걸지 말고 나에게 희망을 걸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도 지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더 이상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라. 당신의 베데스다 못이 무엇이든지 이제 거기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가 희망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그가 예수님을 주 라고 불렀으나 아직 메시야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통분이 아니라 특별한 분 정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더욱 생겼다.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믿음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을 주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본받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라.

2. 일어나 걸어라.

8-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다.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다. 일어날 뿐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엄청난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가 곧 나았다고 하셨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걷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병자라는 생각, 자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일어나 걷지 않는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이미 병의 근원은 고쳐졌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야 고침 받은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병의 근원이 고쳐졌지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의 몫이다.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는 돕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가 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느냐 그대로 누워있느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인격으로 상대하시지 기계처럼 상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야 한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 걸어라고 하신다. 가난을 떨치고 일어나라. 병을 떨치고 일어나라. 문제를 떨치고 일어나라. 깊이 빠져 있는 죄에서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너무도 위대한 복음이다. 어떤 상황에 있던지 당신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어떤 우울증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당신 병은 나보다 목사님을 찾아가야 할 병이라고 했다. 그래서 챨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갔다. 알렌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처방해 주었다. 시편 23편을 적어 주면서 하루에 3번씩 꼭 읽어야 함. 아침 식사 전에 한번, 점심 식자 전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매일 3번씩 꼭 읽어야 하며 시간도 꼭 지켜야 한다고 처방해 주었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그 처방대로 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처방해 놓으셨다. 당신도 예수님의 처방대로 따라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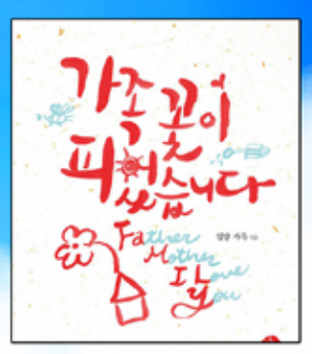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희망이 없는 자에게도 희망이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스터 맥그래서,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키네먼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챤 리뷰(시드니,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카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4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저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탄교, 미주리주 '낙태 72시간 대기'에 소송 · 동성혼은 '성례' 주장
낙태시술소 Planned Parenthood 연방지원금 금지 통과 위해 기도

지금 미국 안에서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의 충돌이 팽팽하게 맞대어 싸우고 있는 영적전쟁 시대입니다. 그 심각성은 아래의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이 땅에 깊이 뿌리박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2016년 대선에 6개주로 나눠지는 투표권 생겨

몇 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캘리포니아주를 나누자는 서명운동이 'Six California'라는 보수파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투표 사안에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자보다 808,000 이 넘는 1백30만 서명을 받음으로서 2016년대선 때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이 사안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의 민주당들이 계속 비민주적이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막고 있는 정치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기업가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팀 드레이퍼(Tim Draper)에 의해 지지를 받으며 이들이 힘을 모아 몇 년간 끈질기게 싸워서 생겨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캘리포니아에도 소망을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는 신앙과 정치가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어 크리스천 주민들이 어떤 바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아직도 반대의견과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들은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은 1백30만이 넘는 서명들이 새크라멘토에 넘겨진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법적으로 이것이 2016년 투표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면 아래와 같이 캘리포니아는 6개 주(State)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Jefferson: Northern part of the state, Humboldt and Mendocino counties.

■North California: Sonoma, Napa, Sierra Nevada region.

■Silicon Valley: San Francisco, San Jose and the Bay Area.

■Central California: Central valley farm region, Tulare and Fresno counties.

■West California: Santa Barbara and Los Angeles.

■South California: Inland Empire of San Bernadino and Riverside, San Diego.

성경책 출판사들 벌금 7천만 달러 소송 걸려

7월 초에는 Bradley LaShawn Flower라는 동성애자인 남성이 기독교 서적들과 성경을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Zondervan(존더벤) 출판사와 Thomas Nelson(토마스 넬슨) 출판사에 7천말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또 한번 미국 전역의 기독교 단체들과 성도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Bradley라는 동성애자가 이 두 성경출판사를 한꺼번에 소송한 이유는 두 출판사가 출판한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적은 성경구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Zondervan 출판사를 고소한 이유는 1982년, 1987년 발행된 킹제임스 성경책 고린도전서 6:9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출판한 것을 그 당시 Bradley가 다닌 교회의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들은 이후부터 자신은 20여년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7천만 달러의 소송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에 모든 세상을 맞추고자 억지를 쓰는지 날이 갈수록 그 증상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낙태는 사탄교의 의무이며 동성결혼은 사탄교의 거룩한 의식이다!" 주장

미국의 두 번째 사탄교 본부인 뉴욕에 있는 "사탄사원"(Satanic Temple)이 미주리 주가 낙태를 제한함으로 "사탄교의 종교적 자유를 위반한다"고 미주리 연방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미주리 주 법에 의하면 여성과 태아를 위해, 그들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즉, 낙태를 받기 전에 72시간 대기기간이 있고 여성이 기다리는 동안 낙태의 절차, 낙태를 할 때 태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또한 낙태를 하는 엄마에게는 어떤 영향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후 엄마들이 진짜로 낙태를 원하는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탄교는 미주리 주의 이런 법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과 개인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미연방대법원에 미조리 주의 "72Hours Waiting Period-72시간 대기기간"을 소송한 것입니다. 사탄교의 주장에 의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낙태를 여성들이 자유로이 하는 것은 "사탄교의 종교적 의무"라고 합니다.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는 기독교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사탄교도 종교적 자유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탄교 사원의 설립자이며 대표자인 Doug Mesner에 의하면 동성결혼은 사탄교의 성례 (sacrament-거룩한 의식)이며, 낙태는 사탄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탄교의 가치관에 동의하며 열심히 지지해주는 곳은 오바마 정부에서 가장 큰 지원금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최대낙태시술소인 Planned Parenthood입니다.

Planned Parenthood 낙태 직전의 태아 장기 빼서 팔다가 걸려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가 낙태직전에 태아 장기를 수확하고 태아는 죽인 후에 그 태아의 장기를 팔다가 들키게 되어 지금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의 연맹수석 감독의사인 Deborah Nucatola가 아기의 장기 수확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도 끔찍한 설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세히 해주는 모습이 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비밀 비디오에 찍혔는데, Deborah가 말하기를 "아기의 장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아기를 불감증 위치로 머리만 놔두고 몸은 엄마 몸 밖으로 나오게 한 후에 머리를 찔러서 아기를 죽이고 몸의 장기만 수확해서 판다"라고 설명하는 비디오가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 중순에 하원에서는 이 낙태 대기업에 주고 있는 연방지원금을 끊는 법안인 HR3134 "Defund Planned Parenthood Act"를 소개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14년에 새롭게 뽑혔던 보수파 정치인들이 그동안 생명을 지키고 살리고자 노력한 결과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80명 하원의원의 지원이 있고 상원이 조사하는 1년 기간 동안 Planned Parenthood에게 가는 모든 연방자금에 즉시 유예를 두게 됩니다.

이 법안을 소개한 하원의원인 Diane Black이 말하기를 "Planned Parenthood는 여자에게 선택을 주는 단체지만, 여성의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기업은 여자들이 가장 어렵고 취약한 순간(낙태를 할지 말지 혼돈한 상태)에 여성들을 속여 낙태를 선택하게 유도한 후, 그들의 태아 장기를 빼내어 파는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보다 편한 삶, 그리고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Planned Parenthood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매년 33만 명을 낙태하고, 5억불이나 되는 납세자의 돈으로 연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방지원금을 끊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Planned Parenthood에 의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살인되어온 태아들에 대한 애도와 잘못 주어지고 있던 연방지원금이 속히 끊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꼭 상, 하원에서 통과되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Planned Parenthood의 무분별한 낙태시행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부탁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200년 이상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이 미국이 현재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전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보면서 자녀들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는 이 미국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요?
-팔로스버디스 김 권사

A: 과거 미국은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자를 화폐 안에도 새겨놓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63년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십계명을 금지한 일이나 1973년 1월 23일 연방대법원에서 7 :2판결로 낙태가 자유화된 일 이후로 기독교와 이에 대항하는 무신론, 성경중심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가치관과의 심한 영적전쟁에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6월 26일의 연방대법원의 동성합법화 결정을 보면서 미국은 이젠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구나 라는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인교회 선교대상을 2세로 삼고 철저한 기독교교육 시켜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수치스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의 최대 피해자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립학교의 교육이 친동성애 경향으로 무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자녀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탈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미국의 법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목을 조이고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류시민으로 전락하고 핍박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성경적 사건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붉은 용 사탄이 3가지 하수인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계13:1-10) 둘째는 새끼양 즉 타락한 주의 종인 거짓선지자를 통해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숭배 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셋째는 음녀 바벨론을 통해 이 세상 물질문화와 사치와 음란 등 향락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전세계에서 이젠 인본주의의 선봉에 선 국가로 철저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무신론이 득세하고 탈기독교적인 반기독운동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미국이 51%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하나 막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심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지 바나의 말대로 "주전자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실정입니다. 밑에서 불을 서서히 높이자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선교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선교가 해외선교 이전에 2세들의 교회 기독교 교육이며 이민교회는 이제 미국을 선교하는 선교교회로 탈바꿈하여야 하며 한인 이민자들은 이젠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란의 루리(Luri)

루리는 이란 남서부의 자그로스산(Zagros)에 살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믿는다. 혹자는 그들이 7세기(백년) 동안 시리아로부터 이주했다고 말한다.

루리는 원래 자그로스산의 줄기인 로스탄(Lorestan), 박타란(Bakhtaran), 쿠키루야(Kohki-luyeh) 세 지역에 거주한다. 이 산맥의 골짜기들은 종종 다른 유목민이 사용하기도 했던 풍부한 목초지가 있다. 비록 대부분의 루리가 이 지역에 살기는 하지만 다른 루리 공동체를 이란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61,300명은 이라크의 국경지역 맞은편에 산다.

루리는 현대 페르시아어와 매우 유사한 '루리'라고 불리는 언어나 '팔시'로 말한다. 루리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들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보통 2개어를 병용한다. 여자는 보통 루리만 말한다.

삶의 모습

루리의 절반정도는 양을 친다. 그들은 일년의 6-8개월은 여행을 하고 검은 염소털 텐트에 거하면서 유목민으로 살며 겨울의 몇 개월만 본래의 집에서 산다. 10월부터 4월까지 그들은 낮은 지대의 목장에서 살고, 건기가 되면 양떼를 고산지역의 목장으로 옮긴다. 루리는 목자의 성공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자질과 행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루리 사회는 가장 큰 짐승 떼와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배한다. 이 상류계급은 그들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고용한다. 루리의 대부분은 하류계급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상류계급의 일과 경제적인 도움을 의지한다. 작은 떼의 목자들은 충분한 수입을 벌기 위해서 큰 떼의 소유주들에게 그들의 아들들을 고용시킨다.

어떤 루리들은 양치는 것보다 농업을 더 좋아한다. 그들은 한해의 대부분을 상설마을에서 살면서 그들의 주요작물로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루리는 부족 또는 일(il)이라고 불리는 정치적 단위에 의해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부족은 몇 개의 다른 하위부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부족 또는 오라드(oulad)는 공통의 조상을 갖는 몇 개의 가족들로 만들어진다. 하위부족은 3-8개 텐트가족(tent households)의 작은 마을로 나누어진다. 텐트가족은 남편, 아내, 아이들 그들의 양과 염소 떼를 포함한다.

각 부족들은 하위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세습족장 또는 칸(Khan)을 우두머리로 둔다. 매년 곡물과 동물에 붙이는 세금은 칸을 위한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루리는 그들의 풍부한 민속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설화는 각 부족 그룹의 역사를 미화하고, 그들의 영웅의 모험을 묘사한다. 그들은 또한 명예, 충성, 관대함 그리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용기와 같은 특성을 강조한다.

신앙

루리 사람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 완전히 독단적인 경향을 갖는 대부분의 시아파와는 달리, 간단한 종교적인 관습을 가진 아주 실천적인 믿음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성자들(다양한 이슬람 단체들의 창시자)이 헌신하는 성지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 성지들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육체적 심리적 병을 가진 사람들은 완치의 희망을 가지고 매년 방문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란은 최근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문제에 직면해 있다. 루리는 지속적인 정치 불안상태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진실에 대한 내적인 평화에 대한 중대한 필요가 있다.

많은 아이들이 교실과 선생님의 부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다. 이란 성인의 48%만이 읽고 쓸 수 있다. 믿는 사람, 교회, 성경, 그리고 선교사의 부재로, 루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한국 발굴단, 3000년 전 '르호보암 성벽' 첫 발견

세계 성서고고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르호보암 성벽이 한국발굴단에 의해 3000년 만에 깨어났다. 26일 오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텔 라기스(Tel Lachish)' 발굴 현장. 북쪽 경사면 해발 255m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텔 라기스 한국 발굴단'(단장 홍순화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 강후구(서울장신대 교수) 발굴실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최고 온도는 섭씨 39도. 구름 한 점 없는 성지(聖地)의 여름 햇볕 아래에서 작업하던 발굴단원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됐다. 이날따라 몰아친 먼지바람은 평소보다 서너 배 많은 흙먼지를 만들었다. 해지기 직전, 마침내 3000여년 전 토기 조각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BC 10세기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돌로 된 성벽이 한국인 성서고고학 발굴단에 의해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은 지금까지 세계 성서 고고학계에는 알려진 적이 없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발굴은 한국교회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라기스는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도시국가 중 하나로 성경에는 24번 언급된다. 예루살렘에 이어 2번째로 큰 성읍이며,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베들레헴·에담·드고아·헤브론 등 13개 성읍과 함께 요새화했으며(대하11:5-12),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시절엔 앗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공격 이전에 라기스를 포위하기도 했다(왕하18-19장).

이번에 발견된 성벽은 너비 3m의 돌 성벽이다. 각각 20-30㎝ 크기의 잡석으로 7-8층 규모로 축조돼 있었다. 성벽 옆에서는 당시 사용된 대접과 단지 등으로 보이는 토기 조각들이 출토됐다. 대접은 두께가 3-5㎜이며 단지는 지름이 30-40㎝ 정도로 추정된다.

강 실장은 "출토된 토기의 구연부(rim)와 몸체는 주전 10세기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며 "적색 덧입힘으로 표면을 장식하고 불규칙적으로 손 마름질을 한 토기가 발견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굴로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르호보암 시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라기스의 총 면적은 6만5000㎡(1만9697평)에 이른다. 1932년부터 3차에 걸쳐 세계 고고학계가 발굴 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르호보암 성벽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한국 발굴단에 의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은 지대가 높거나 물이 있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 이후 전쟁으로 파괴되더라도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다시 도시를 구축했다. 이렇게 되면 지층이 형성되면서 역사의 흔적이 '시루떡'처럼 남는다. 홍순화 발굴단장은 "이런 지형을 현지어로 '텔'이라 부른다. 알파벳으로 'tell'이라 표시하는데 역사가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했다.

한국 발굴단은 2013년 라기스 북쪽 능선에 대한 시험 발굴을 시작,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을 한 결과 페르시아(바사) 시대부터 아마샤(유다왕국) 시대까지의 성벽을 발견했다. 발굴단은 내년에도 르호보암 시대의 건물과 성벽 전체에 대해 광범위한 발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발굴 책임자인 요셉 가르핀켈(히브리대 고고학) 교수는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 발견으로 BC 10세기 유다왕국에 대한 연구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한국 발굴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케냐 대통령 "동성애는 미국과 공유하지 않는 가치"

'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반(反) 동성애 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할 때 자유는 침해받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관습을 만들면 그러한 관습은 확산한다"며 "그 법에 의해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미국에 사는 흑인으로서 고통스럽게 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사업 또는 일을 하고, 교통신호를 지키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그들의 사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달리 대접받거나 학대받는 일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부로 밀려난 어떤 그룹이라도 극단주의 세력들에 의해 쉽게 포섭되는 만큼 이러한 촉구는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는 최근 소말리아에 기반을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가 전사의 수를 늘리며 테러가 확산되는 사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은 동성애 권리의 문제는 케냐의 이슈가 아니며 케냐인들은 국가의 인프라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더욱 관심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촉구를 일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케냐와 미국이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정상은 케냐에서 테러를 일삼는 알샤바브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19개월째 지속된 남수단 내전 당사자들이 '애국적 차원에서' 평화협정을 맺어 더는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케냐의 직항 노선의 개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취임 이후 흑백갈등 더 심해져

미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흑백간 인종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와 CBS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09년 4월 흑백 인종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무려 66%에 달했다. 반면에 인종관계가 나쁘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흑백 인종관계가 좋다는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2014년 중반까지 6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8월 미주리 주 퍼거슨 사태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급속히 나빠졌다.

퍼거슨 사태는 '미국 흑백 갈등의 진앙'으로 여겨지는 사건으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일을 말한다. 이 사건 직후 흑백 인종관계가 좋다는 답변은 47% 수준으로 뚝 떨어져 나쁘다(44%)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인종관계가 좋다는 답변은 37%로 더 떨어진 반면에 나쁘다는 응답은 57%로 올라섰다.

그래선지 미국에서 인종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물음에 '악화했다'(38%)는 답변이 '좋아졌다'(21%)는 응답을 압도했다. '여전하다'는 답변은 39%였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1992년 50%→1996년 56%→2000년 71%→2008년 76%→2014년(6월) 78%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2015년 2월에는 76%로 다소 낮아진 뒤 지금은 71%로 더 떨어졌다.

인종을 이유로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42%)는 답변은 그렇지 않다(57%)는 응답보다 낮았다. 그러나 흑인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은 72%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27%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지위향상의 측면에서 인종별로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퍼거슨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4년 6월에는 '백인 유리' 30%, '흑인 유리' 5%, '흑백 동등' 61%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백인 유리' 39%, '흑인 유리' 5%, '흑백 동등' 51%로 큰 변화가 있었다.

터키, 미군에 공군기지 제공…IS공습 '탄력'

터키가 미군의 유·무인 공군기들이 남부 인지를릭, 디야르바키르 등 2곳의 자국 공군기지를 이용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IS 격퇴전에 힘을 보탰다.

23일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관리를 인용, 터키가 미군의 시리아 접경 남부 인지를릭 공군기지 사용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터키가 인지를릭 공군기지 외에도 디야르바키르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도 승인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지난 9개월간 터키와 미국간의 협상 끝에 나온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난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군의 터키 공군 기지 사용에 대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터키는 그간 대 IS 전쟁에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우려, 터키 기지를 이용한 미군의 공습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한 것은 최근 IS와 충돌이 잦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앨리스터 배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터키 공군기지 사용 합의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터키는 IS 격퇴를 위해 중요한 파트너이고 터키가 국제 동맹군에 제공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지를릭 공군기지는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와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어 이번 승인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IS' 국제동맹군이 훨씬 더 신속한 공습 작전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NYT에 "터키 공군기지 사용 합의는 IS 격퇴를 위한 미군의 작전능력을 엄청나게 높여줄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될 것"이라며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과 정찰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터키 일간 휴리예트에 따르면 미군은 다음 달부터 이 공군기지를 통해 IS 공습을 단행할 예정이다. 인지를릭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 지원부대가 배치돼있지만 터키 정부는 무인기(드론)의 정찰 임무만 허용해왔다.

지난 20일 터키 샨르우르파주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폭테러로 32명이 숨졌고, 이날도 터키군과 IS가 첫 총격전을 벌여 양쪽에서 1명씩 사망하는 등 양측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연방 대배심,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에 연방법 위반 기소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달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교회에 난입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21)에게 연방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자 회견을 열어 연방대배심이 증오범죄·화기 사용 위반·종교 행위 방해 등 연방법 위반 33건의 혐의를 추가해 루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9건의 살인과 3건의 살해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배심원단의 기소로 찰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루프의 기소 혐의는 이로써 45건으로 늘었다. 미국 언론은 루프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 연방법 위반 재판에서도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증오범죄를 다루는 법이 없는 점을 고려한 연방 정부가 사건 직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를 대신해 증오범죄로 루프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이날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법무부는 흑인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등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루프가 흑인만을 표적 살해한 자체만으로도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오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기소를 당연한 절차로 여겼다.

수사 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증오범죄로 기소하려면 특정 인종과 종교를 반대해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드러난 루프의 인종 차별주의 성향,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던 그의 자백, 희생자들이 오로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던 찰스턴 경찰서 수사 관계자의 전언 등이 모두 증오범죄 요건에 부합한다.

법무부는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희생자 유족 일부가 루프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형 대신 종신형 선고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루프가 실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소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의 검사들도 사형 구형을 결정하기 전 모든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IS 잔학행위 참을 수 없어" …호주인 IS 탈출 귀국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호주 국적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호주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IS에서 활동하던 호주인이 귀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호주 정부는 100명 이상의 자국인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태생 무슬림으로 남성 간호사인 아담 브룩맨(39)은 전날 밤 시드니로 돌아온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브룩맨은 시리아인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판단, 자신의 의료 기술을 인도주의적 지원에 쓰려고 시리아로 건너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시리아 방문 목적이 IS 합류가 아니며 부득이 IS 쪽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브룩맨은 시리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던 중 공습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마침 이 병원이 IS 관리하에 있었다고 호주 언론에 설명했다. 이후 IS가 퇴원을 막고 합류를 강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IS 지배 아래에서 약 10개월을 지내면서 십자가형 등 IS의 잔학행위에 탈출을 결심했고 터키로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그들의 납치행위나 다른 이슬람 종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인과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하는 일은 견디기 어려웠다며 IS가 하는 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멜버른 출신으로 5명의 아이를 둔 브룩맨은 직장을 쉬는 동안 모로코를 방문하면서 이슬람에 더 깊이 빠져들었으며 지난해 초 시리아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경찰은 브룩맨이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성인 동성애자도 가입 인정"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BSA)이 조직 내에 성인 동성애자를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BSA는 27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성인이 맡는 단장 자리를 동성애자가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되 종교 단체의 후원을 받는 조직은 예외로 하는 안을 45대 12로 가결했다. 로버트 게이츠 BSA 총재는 "너무 오랜 기간 이 문제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다"며 "이제는 공유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라고 말했다.

이 안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BSA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SA는 2013년 5월 청소년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성인 지도자나 유급 직원은 제외하면서 교회 등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후원 기업들이 지원을 삭감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모르몬교는 "교회의 교리나 보이스카우트가 지켜온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심히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인권캠페인(HRC)은 "보이스카우트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의 후원을 받는 단체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철학 근거로 바른 '기독교 영지주의' 위한 노력 불구 신비주의로 남아
상황화에 맞춘 선교는 위험...복음의 변증은 복음위에 굳게 설 때 가능

1. 초대 교회 - 교부 (12) 변증 교부, 클레멘스학파 (2)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반드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상황화(狀況化, contextualization)'의 좋은 모범이 된다. 그러나 '상황화'가 지닌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선교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하려는 복음보다 상황이 강조되면 복음의 순수성이 실종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남아있게 될 수 있다. 언제나 문화는 물론이고 사상, 언어, 사회, 종교, 정치, 경제 등을 연구하고 터득하려 이유는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황은 복음의 전달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문: 철학이 기독교 신앙과 대립되지 않고 복음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통은 클레멘트(Clement, 150-215AD)에 의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다. 플라톤 철학의 본 고장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을 받았다. 나아가서 그리스, 남부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우수한 철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철학에 심취되어 살던 클레멘트에게 일생일대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그 당시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활발하게 증명하던 그의 스승 판테누스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을 경험한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신앙인이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연구하고 깨달은 철학사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클레멘트에게 철학이란 기독교 신앙과 대치하는 학문이 아니었다. 철학은 성숙된 믿음 또는 바른 신앙에 도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율법이 몽학선생이었다면 철학은 헬레니즘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은 그리스도께 힘입어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 길을 닦아 준, 일종의 준비였다"(양탄자, I.v (29,1)). 그가 철학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은 철학이 로고스 또는 신적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철학은 성도에게 신앙에 관하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 기독교 영지주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분명하게 배격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육체가 아닌 영혼의 영역으로 국한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이 지닌 구속사적 의미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클레멘트도 영지주의 주창자인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미 앞서 살펴 본 순교자 저스틴과 같은 반영지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한편 클레멘트는 영지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해한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적 문제는 그들이 지닌 철학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신앙과 지식의 올바를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영지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에게 계승된 철학의 전통을 근거로 올바른 '기독교 영지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클레멘트의 사상은 그가 저술한 세 권의 책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교인들에 대한 권고"는 이교인들에게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로고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매우 짜임새 있게 논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라면 반드시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함께 도덕적인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양탄자"는 참된 영지주의와 영지주의자의 삶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고 있다.

클레멘트는 "양탄자"의 앞부분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낸다. "내 책은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말한다. 몇 가지 점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몇 가지 점들은 그냥 진술만 하되, 몇 가지 점들은 비밀스럽게 말하고, 감추인 형태로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보여준다. 잘 알려진 이단들의 교리를 소개하고, 신비주의적 사새글 통해 얻은 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되,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전승의 준칙을 고수한다"(양탄자, I. i(15.1)). 그가 말하는 '전승의 준칙'이란 바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과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가현설(Doceti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구주는 음식을 드셨으나 그의 육체는 거룩한 능력으로 지지를 받았으므로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드신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자신에 관한 그릇된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셨다. 실제로 후대에 구주께서 오직 외형으로만 나타나셨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이다"(양탄자, VI. ix (71)).

이와 같이 클레멘트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에 맞서서 '기독교 영지주의'를 효과 있게 변증하였다. 그는 철학학교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 신비주의적 요소

클레멘트의 '기독교 영지주의'가 큰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는 하나님이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자에 대한 믿음 또는 그와의 관계를 통하여 신지식을 얻을 수 있다. "주의 영은 마음의 은밀한 방들을 찾아 비추는 등불이다.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여 더욱 밝아지듯이, 빛을 비추는 영께서 더욱 가까이 오신다. 따라서 주님은 의인을 가까이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즐기는 사유를 그분이 못보고 넘어가시도록 막을 길이 없다. 그 분이라 함은 주 예수를 뜻한다"(양탄다 IV. xvii (107,5)).

〈12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장수(Longevity) 시대의 마음가짐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누군가가 우스개 소리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UN이 정한 중년기 나이가 60세부터라고 해서 "우린 아직 청년이네" 하며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과연 우리 시대는 특별한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평균수명이 80을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장수시대에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우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단지 거북이 마냥 오래 사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며, 활발한 친구 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될 것인가? 이를 위해 몇 가지 바람직한 노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본다.

1. 노년에 자주 하는 질문들 (Questions often asked)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소?(Who did you used to be?) 어떤 일을 해왔나요?(What did you use to do?) 그런데 보다 나은 질문들 (Better questions are)은 다음과 같다: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Who are you now?)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Who do you want to be?)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What do you want to do now?)

2. 노년기는 인생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할아버지"란 말은 "크신" 아버지란 뜻을 가진다고 한다. 자신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기회를 가지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나눠주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본다.

1)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집착하기보다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2)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기보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도움을 받음. 3)미래/천국에 대한 확신과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성실하게 추구함.

3. 노년기 삶의 모델을 찾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할 것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나 쓰임을 받았다.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민하였고, 모세(Moses)는 80세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맡았고, 갈렙(Caleb)은 40대에 받았던 약속에 대해 나이 85세에 청년의 기상으로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그야말로 충성스런(Wholehearted) 사람이었다. 충성스럽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주저함이 없으며 뒷끝(아쉬운 생각)이 없다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의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탁 받은 일(소명이나 사명)이 있다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4. 존경 받는 부모/조부모가 되기 위한 지혜들

1) 자녀/손주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십시오. 2)남편/아내사이에 서로 존중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3)혹시 잘못 했다고 생각 되시면, "미안해, 미안해요…"라고 하세요. 오래 전 일이면 자녀에게라도 미안하다는 "편지"를 써 보내세요. 4)건강에 좋은 음식(특히 뇌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드시도록 하세요. 5)호기심을 가지고 취미생활(그림이나 악기 등)을 가지도록 시도하세요. 6)새로운 운동(수영, 등산, 포크 댄스 등)을 배우려고 시도하세요. 7)소도쿠나 퍼즐 게임(Sodoku /Crossword puzzles)을 해보세요. - 치매 예방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6)

기도의 능력(1)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며 방법, 모든 힘의 원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기도응답은 말씀으로 받아야

기도가 문제해결의 능력이요 방법이다. 문제가 있어도 낙심치 말라.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반드시 풀 수 있고 해답이 있기에 문제가고 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염려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모든 힘의 원천은 강력한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주의 일꾼들은 남다른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능력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항상 끊임없이 믿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늘에 매달았다(수10:12-14). 그러나 그것이 하루 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늘 기도로 살았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와서도 피곤한 몸도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33:11).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능력이요, 이 능력은 기도로부터 온다.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면 기도는 그 양식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밥만 먹고 하루하루 연명한다면 이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 받기 어렵다. 밥을 먹으면 우리는 먹은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기도에서 출발한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소유하고 계신다(슥4:6).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능력으로 무장하자.

기도는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그 어떤 무기보다 기도가 더 능력 있음을 믿어야 한다. 무기는 멸망을 가져오지만 기도는 부흥을 가져온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진리가 유린되든지 신앙의 양심이 짓밟힐 때 힘껏 싸워야 한다.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모든 갈등과 상처를 성령님이 치유해주시도록 기도하자.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게 한다. 다니엘 10: 1-14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다른 때 같으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을 텐데 21일째 되는 날에야 응답이 왔다. 응답을 가져온 천사의 말인즉 벌써 첫날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바사국군이 천사를 결박해서 지연되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다시 보냈다는 것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외마디 기도라도 외면하시지 않는다. 기도는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한다. 다니엘이 21일의 기도로 마귀의 방해를 이긴 것 같이 우리들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기도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변한다는 것이다. 기도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먼저 자신의 부정함과 우매함을 알게 된다. 기도함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아이들이 속상하게 해서 기도하다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신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자신을 변화의 길로 인도한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하게 된다. 기도는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문제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만사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서 모 집사님이 있다. 그분은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되고 실패만 거듭하다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말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아보니 사명이 있다고 신학을 하라고 하더란다.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이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돈이나 벌고 부인을 신학교에 보내라고 하더란다. 한번 생각해보라. 세상에 돈이 잘 벌리면 왜 거기 찾아갔겠나? 그래서 나는 "당신이 사명이 있으면 신학을 하라"고 하여 부산신학원 대학부에 등록을 시켰다. 그런데 이 분의 성격이 아주 나쁘다. 매일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의자를 치면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귀에다 대고 "야, 서 집사야. 훈련병도 실탄 주냐?"라고 물어봤다. 그 집사가 이해를 못하고 "예?"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다. "실탄을 지급할 때는 철저하게 병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과 훈련된 병사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니 네가 먼저 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훈련병에게도 총과 실탄을 주는가? 주지 않는다. 왜 안 주는가? 총을 잘 다룰 줄을 모르니까 주면 사고가 날 것이므로 주지 않는 것이다. 그와 같이 능력도 쓸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왜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충만'이요, 또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다. 내적인 충만은 인격의 변화요, 외적인 충만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내적 충만으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충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7:21-23의 이들이 바로 인격의 변화 즉 내적 충만없이 외적인 충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니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지니 쓰임받고 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충만보다 외적인 충만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고후12:7-8)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고하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내외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에 덕은 끼쳐도 전도를 못하며, 외적으로 충만하고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표적이 나타나니 전도에는 유리하지만 교회 안에서 건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모두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여기에 다시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기도는 고통을 이기는 힘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요14:12-14). 세상에 어떤 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기도는 탕자도 성자로, 주정뱅이도 거룩한 사람으로, 조폭도 양민으로, 창녀도 현숙한 여인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다시 말하지만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이 시대 어르신들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우리들의 인성

"어르신은 이 시간에 못 들어가십니다."

지난 새벽 미국에서 손님으로 오신 대학 총장님을 시립 수영장에 모시고 갔는데 관리자가 우리를 막아섰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먼 길을 왔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매일 아침 수영을 하셔서 수영을 아주 잘 하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하지만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그렇게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한번 봅시다."

시립 수영장 직원은 수영시간 안내 포스터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한 문장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새벽시간에는 어르신과 어린이 입장은 불가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할 수 없이 뒤돌아서는데 왠지 낯이 달아올랐다. 동행한 손님도 한마디 보태셨다.

"지금까지 내 나이가 몇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 저분이 면전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지적해주는군요."

100세 시대를 앞둔 요즘 69세이신 그분이 이런 수모를 겪고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OECD Health Date 2014'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1.3세로 최근 5년간 1.9년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60년쯤에는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이 86.6세, 여성은 90.3세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학의 발전과 다양한 건강법이 개발되면서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졌지만 어르신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한이 많다. 수영장에서 새벽운동을 제한한 것처럼, 일부 대중목욕탕에서도 보호자 없는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사실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여가 시간을 보낼 곳은 경로당, 복지회관, 공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어르신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경제활동이 제한된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OCED 국가 중 노인 빈곤률 1위이다.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고 자녀의 부양의식도 희박해지면서 어르신들이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의 유형과 수는 한정적이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다. 수영장에 갔던 날 수영장 직원태도는 어르신에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수영도 마음대로 못하는 구나'라는 좌절감과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할 텐데 그의 태도에선 그러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좋은 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젊은 세대에겐 어르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과 불편한 건 없으신지 잘 관찰하고 보살피는 '배려의 성품'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반세기 이상 자신의 인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지혜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들이 가정과 사회를 위해 흘린 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공헌에 감사하며 존경받아야 할 분들로 마땅히 배려해야한다. 그러한 배려가 100세 시대를 앞둔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할 인성이다.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투 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흥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일 ~ 11일 (합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옥목사)

5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소망교회(이정현목사)
18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2일 ~ 24일 (합동)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청운교회(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옥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21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6일 ~ 8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9일 ~ 11일 제자교회 (유충국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1일 ~ 23일 풍산교회 (박경순목사)
27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014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4월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싱 샘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목회서신

내 꼴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는가?

여승훈 목사

각 사람의 내면의 공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남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남에 대해 부정적인 말 몇 마디를 쏟아내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더욱 탁하고 거칠고 어두운 영의 공기가 형성된다. 남에 대해 열 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열 마디만큼의 어두운 공기가 그 사람의 내면에 찾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같이 쏟아내고 나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악해지게 된다. 참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의 독소는 고스란히 쏟아낸 사람의 내면으로 돌아 들어간다. 쏟아내고 나면 내면이 시원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진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하나를 소개한다. 비판하는 대로 자신도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자신도 남들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2장은 이 법칙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동일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유발시킬 앞으로의 가능성도 동시에 보신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당신은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고 있다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도 똑 같은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이 들어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덕인줄 알아야 된다. 교양이 있어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외모가 좋아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선한일 많이 하고 다녀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크레딧이 좋아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에 얼 굴들고 다니는 것 아니다.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이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더 고상한 품격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간다. 스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가야 된다.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그분이 보여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데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데 그분의 요구를 거역할 수 있겠는가? 막상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은 심정이어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싶은 말 거두어들이고 입을 다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보기 전에는 할 말이 많은 법이다. 밤을 새워도 그 말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입이 닫혀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누가 할 말이 있겠는가? 그 누가 비판할 수 있고 그 누가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저 고개 숙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눈물짓는 것이 전부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자기 자신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도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이런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쉽게 남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 없을 것이다. 흠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죄도 덮어주게 하는 능력이 있다. 현대 기독교가 꼭 돌아가야 하고 시급하게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기를 갈망하라.

AB1266 무효화 위한 개인사생활보호법 발의안 상정 청원

11월 20일까지 50만명 서명 청원서 제출해야

지난 4월 상정을 위한 개인사생활보호법 청원이 시작됐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8월 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과 지난 선거 때 결정된 주민발의안 AB1266(Co-Ed Bathroom Bill) 법안에 맞선 새로운 법안이다.

주민발의안 AB1266은 켈리포니아주 전 공립학교에서 남녀 공동 화장실 사용 및 라커룸 사용을 허락하는 법안이다. 아직 이를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없지만 법으로는 허락이 돼있는 형편이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자칭 성전환자가 여학생 샤워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서 콜로라도 주민들을 큰 혼돈에 빠트린 적이 있었다. 이에 맞선 개인사생활보호법(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가주 모든 청사 및 관공서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라커룸 사용은 생물학적 근거에 기준을 둔다는 법안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논란이 됐던 AB1266 주민발의안, 즉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각한 성 정체를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개인사생활보호법 상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는 50만명 이상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서명된 청원서가 도착되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주민발의안으로 채택되며 AB1266법안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PRIVACY FOR ALL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An Initiative called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was filed in April. This Initiative, if passed, will protect a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while using locker rooms, restrooms, and showers in government buildings.

- Under the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a person must us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biological sex in government buildings, including schools.
- Currently in California, schools are implementing co-ed locker rooms, bathrooms, and showers! This Initiative is necessary to stop this assault on privacy.
- Boys and girls should not be forced to shower, change, or use the restroom in front of members of the opposite sex.
- Despite what opponents claim, keeping these facilities separated by sex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or any Federal laws.
- We must gather 500,000 signatures to qualify this Initiative for the 2016 ballot.
- **Petitions are due in our office by November 20th, 2015.**

www.PrivacyForAll.com

PRIVACY FOR ALL

"개인사생활 보호법 발의안"

www.PrivacyForAll.com

AB1266 무효화 위한 개인사생활보호법 발의안 상정 청원안내

태평양법률협회에서는 "180일 동안 개인사생활보호법 상정을 위한 청원서명이 실시되는데, 2016년도 선거 때는 양상이 좀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가주 주민투표율이 너무 저조했기에 이번 서명은 2014년도의 반정도 수만 서명을 받아도 법안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6만5천880명의 서명만 받아도 법안상정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에 실시됐던 SB48과 클래스액트 때처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50만표 이상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것은 태평양법률협회 (213)284-4202, (714)640-747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아세아 신학대학원/태평양 이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세아신학대학원-태평양 가을학기 개강

8월17일-12월11일 선교학 3과목 오픈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Pacific(아세아신학대학원-태평양, 학장 노봉린 박사) 2015년 가을학기(8월17일-12월11일)가 개강을 앞두고 지난 20일 오전 호놀룰루 신학교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박형용 박사-이사장(전 합동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 김영욱 박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 정흥호 박사(총무,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장)가 참석했으며 하와이에서는 노봉린 박사, 조일구 박사, 이영배 장로가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의 7개국과 호놀룰루에서 진행되는 선교학 학위과정(MA, Th.M, D.Min.)을 통한 프로그램이 논의됐다.

한편 당일 오후 6시 마카로아(Makaloa)에 소재한 신학교 강의실에서는 약 20명의 호놀룰루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이번 가을학기를 통해 선교학으로 세 과목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강사로는 노봉린 박사(현대선교의 이슈), 조일구 박사(지교회와 선교), 박형용 박사(성경적 선교신학)가 참여한다.

〈기사제공: 아세아 신학대학원/태평양〉

PCA-CKC 남부노회 중고등부 청년 대학 연합수련회

지난 26일과 27일 PCA한인(PCA-CKC) 남부노회가 주관한 중고등부 청년 대학 연합수련회가 윌밍턴 임마누엘한인장로교회(담임 신동민 목사)에서 열렸다. 총 20명이 참석한 이번 연합수련회는 정준승 목사와 최순종 전도사의 지도로 집중적인 사랑과 교육, 친교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PCA-CKC 남부노회〉

2015 CCM루키 오디션

예선 8월 15일, 본선 29일

2015 CCM루키 오디션이 원하트 미니스트리(OHM 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로 오는 8월 개최된다. 예선은 8월 15일(토) 오후1시 원하트 미니스트리 8th 라이트 스튜디오(1636 W. 8th St, Suit 204)에서 갖게 되며 본선은 8월 29일(토) 오후 6시 세리토스 페이스센터 채플(1841 178th St, Artesia)에서 갖는다. 시상은 대상 1명(팀) 트로피와 상금 1천 달러 그리고 OHM소속으로 디지털싱글(4곡 기준) 제작 및 사역 프로모션 참여, 금상 1명(팀) 트로피와 상금 5백 달러, 부상 디지철 싱글 1곡, 은상 1명(팀) 트로피와 상금 3백 달러, 부상 디지털 싱글 1곡, 동상 1명(팀) 트로피와 상금 2백 달러, 인기상 1명(팀) 트로피가 증정되며 모든 입상자들은 OHM 사역 프로모션에 참여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홈페이지 다운)와 사진 2종류, 참가비, 참가곡 악보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https://www.facebook.com/groups/1heartministry/, 카카오톡 sosys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솔로 20달러, 듀엣 30달러, 그룹(밴드, 합창, 기타) 50달러이며 당일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1636 W. 8th St, Suit 204, LA, CA 90017로 하면 된다.

▲문의: (213)347-5080

〈박준호 기자〉

샬롯장로교회 2015 VBS를 마치고 참석어린이들과 교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샬롯장로교회 2015 VBS 풍성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2015년 어린이여름성경학교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32명의 어린이가 참석했으며, 교사진도 리더와 어시스턴트 모두 20여명이 정성을 다해 풍성하게 VBS를 인도했다. 이번 VBS는 곽선신 전도사가 총 지휘를 했으며 나성균 담임목사도 함께 참여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특별히 여전도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지막 날에는 모어쓰빌에 있는 동물원으로 트립을 가는 시간을 마련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 섭리를 몸소 체험했다.

어린이성경학교 모든 운영비용은 교우들이 후원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선교헌금(534달러) 전액을 물한 모금선교회(권종승 선교사)에 보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리스팅 및 광고 9월말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6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제10회 뉴욕 크리스챤 영상제

제10회 뉴욕 크리스챤 영상제(NewYork Christian Film Festival)가 11월 7일(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Healing"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상제의 마감일은 9월 30일. 등록비는 60달러이며 대상 상금은 2천 달러. 동 영상제는 10주년을 맞아 뉴욕 커뮤니티를 상대로 다민족을 초청해 음식, 음악, 그리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영화 페스티발"을 준비한다. 크리스천 영상제의 지난 작품과 등록안내는 http://nypcian.org/new-york-christian-film-festival/

▲문의: (501)766-8827 이메일 NYPC.Filmfestival@gmail.com

지휘자와 반주자 청빙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2부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청빙한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 지휘와 반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를 보내야 한다. 이메일: nycdchurch@yahoo.com

▲문의: (347)502-5435

뉴욕늘기쁜교회 부흥성회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8월 14일(금)부터 16일(주)까지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담임)를 초청, 부흥성회를 갖는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금, 토요일 저녁 8시30분, 주일은 오전 9시와 11시에 열린다.

▲문의: (718)359-0691

광복70주년 기념 페스티벌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광복의 의미를 후대에게"라는 주제로 광복7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월 1일(토) 저녁 8시, 광복기념 영화상영(눈길), 광복세대 간증 다큐멘타리 상영(자체제작) △8일(토) 저녁 8시, 한국 CCM 그룹 "마커스" 초청 열린음악회, 가든 오페라단 공연 외 한국 전통국악 공연 △9일(주) 저녁 6시, 특별초청 "마커스" 찬양집회 △14일(금)-15일(토) 저녁 8시, 손봉호 교수 초청 특강(크리스천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임)

▲문의: (201)843-2222

뉴욕장로연합회 7월 정기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7월 정기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뉴욕지구 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지하특실 에서 제31차 7월 정기기도회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지난 5월 엘리스아일랜드상을 수상한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 축하와 7월에 생일을 맞은 김명신 장로(95세)와 김영호 장로(84세), 주윤덕 장로(85세)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김영호 장로의 인도로, 대표기도 주윤덕 장로, 특별찬양 장로중창단, 말씀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 특별기도 김명신 장로(제3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위하여), 헌금기도 이보춘 장로, 축하패 증정(회장 정권식 장로가 김승희 목사에게)이 있은 후 김승희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친교와 만찬 후에는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제3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장 이계훈 장로 사회로 임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계획서와 후원금 모금, 준비일정 등을 논의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너의 진보를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라'

미주한인여목협 제7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27일 오전 10시 뉴저지 풍림연회장에서 제7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회장에는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가 취임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나명자 목사, 성경봉독 남승분 목사, 특송 미주한인여성목회자 샬렘합창단, 설교 황의춘 목사("헵시바여, 영원하라", 사 62:1-5), 헌금특주 이광희 목사, 봉헌기도 조상숙 목사, 축도 이미선 목사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김신영 목사의 인도로 이임사 전희수 목사, 스톨 인계식, 장경혜 목사 취임사 및 임명장 수여, 권면 김금옥 목사, 축사 이재덕 목사(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축하메시지 김명숙 목사, 하은숙 목사, 하리라 목사, 박옥자 목사, 감사패 증정(전희수 전임회장, 김정숙 전임총무), 광고 장만자 목사, 양승인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미주한인여목협 제7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장경혜 목사는 취임사에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그동안 여성 목회자들이 한많은 보따리를 풀면서 서로 시멘트와 같이 결속되는 바탕을 마련해줬다"면서 "이 결속력을 바탕으로 여성 목회자들이 평등한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목사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목회자의 양성 평등에 대한 법적 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차세대 여성 목회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되고 현재 불평등의 동조자가 될 것"이라면서 "제7회기 표어인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전4:13-16)는 말씀과 같이 발전하는 한 회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장경혜 목사는 7회기의 중점 사역과 관련 "연장교육을 이번 회기의 중점 사역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교회사, 여성신학자 교수를 초청해 교회사에 있어 여성의 위치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회장 자격을 안 수받은 지 10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면서 지도자 양성이 우선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용사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7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경혜 목사 △부회장 권캐더린 목사 △총무 김신영 목사 △서기 장만자 목사 △부서기 남승분 목사 △회계 조상숙 목사 △부회계 안경순 목사.

이외에 △감사: 오명의 목사, 심화자 목사 △특별위원회: ▷신학윤리위 김금옥 목사 ▷멘토위 이미선 목사 ▷선거관리위 전희수 목사 △지역협동총무 ▷뉴욕 김정숙 목사 ▷뉴저지 이은희 목사 ▷펜실베이니아 양승인 목사 ▷코네티컷 김명숙 목사 ▷메릴랜드 최현림 목사 ▷텍사스 이화진 목사 ▷캘리포니아 백석영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교회 이승한 목사 사퇴 확정

21일, PCA 동북부한인노회 임시노회

미국장로교(PCA) 동북부한인노회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뉴저지 허드슨장로교회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뉴욕장로교회 이승한 목사(사진)의 사퇴 건을 통과시켰다.

예배후 열린 임시노회에서는 이승한 목사, 뉴욕장로교회 당회 서기 정인철 장로, 이승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송섭 집사 등 3인의 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 이승한 목사의 사퇴를 확정했다.

이승한 목사는 발언을 통해 "2년 전 뉴욕장로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제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며 △당회와 부목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도 쉽지 않은 뉴욕장로교회 목회인데 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목회가 어렵다 △교회에 남아 있으면 분쟁을 피할 수 없고 교회분쟁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이 싫다는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사퇴의사를 고수했다.

뉴욕장로교회 서기 정인철 장로는 발언을 통해 이승한 목사를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승한 목사와 좋은 관계였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폈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와 당회의 입장만 들으면 되지만 공동의회가 당회와 입장을 달리했으므로(본지 1541호 10면 참조) 노회는 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성도의 발언을 더 들었다. 성도 대표로 발언한 송섭 집사는 뉴욕장로교회 68%의 교인들의 반대이유를 1)이승한 목사 사임은 먼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당회는 목사를 교회에 파송한 노회에 사임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교인 3분의 2 이상이 이승한 목사 사임을 반대한다. 3)지금 이승한 목사가 사임한다면 교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4)이승한 목사는 철저한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순수한 복음위주의 설교를 했다. 5)이승한 목사가 사임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했다 등의 요지로 발언했다.

3인의 발언 후 노회는 3시간여 회의를 통해 이승한 목사가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사퇴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로써 뉴욕장로교회는 3대 안민성 목사 사임 후 3년의 공백 끝에 청빙한 이승한 목사의 담임 직이 2년 만에 다시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자리에서 이승한 목사는 이미 발언한대로 '사퇴'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날 임시노회에는 이승한 목사를 지지하는 3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이승한 목사의 신상발언을 지켜보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설립기념예배 및 장로 임직식에서 임직 받은 장로들이 서약하고 있다.

퀸즈한인교회 설립46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임직식

서영석, 이기복, 전창석 장로, 이민영 명예장로 임직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설립 46주년 기념예배 및 장로 임직식이 지난 26일 저녁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서영석, 이기복, 전창석 장로와 이민영 명예장로가 임직했다.

기념예배는 이규섭 목사 사회로 기도는 주윤덕 원로장로, 설교는 황인철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교회약사는 이민수 장로가 소개했다.

임직식은 이규섭 목사의 기도 후 서약 임직자 및 교우,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임직패 증정, 권면 허민수 목사(뉴저지 열린문성약교회 담임), 축사 이재덕 목사(뉴욕교협회장), 답사 전창석 장로, 특별찬양 연합찬양대, 축도 이규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규섭 목사는 "설립 46주년을 맞은 퀸즈한인교회는 퀸즈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로 한인이민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 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항상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비전을 밝혔다.

황인철 목사는 "권세있는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복 중의 복"이라며 "교회는 주님의 소원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지금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부 분열로 세상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현상만 보면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는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2천년전에 주신 승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국 승리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퀸즈한인교회도 그 승리의 길을 걷고 있으며 계속 승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퀸즈한인교회는 1대 한진관 원로목사(1969-2005), 2대 고성삼 목사(2005-2008)에 이어 3대 이규섭 목사가 2008년 11월부터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임동선박사 비전센터 개관식 감사예배가 열렸다. 사진은 비전센터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잎커팅을 하고 비전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가운데 임동선 목사(사진 가운데)가 감격하는 모습

임동선박사비전센터 개관 감사예배 및 콘서트

동양선교교회 설립45주년 기념행사

동양선교교회(OMC 담임 박형은 목사) 교회설립 45주년 행사가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26일 오후 4시에 열린 임동선 박사 비전센터 개관식 감사예배 및 콘서트는 1부 예배, 2부 콘서트와 비전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로 진행됐다.

박형은 목사는 "역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비전센터는 2세 3세 사역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임동선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신 후에도 후손들이 이곳을 보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는 센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립45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상소개와 박형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허경삼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잠 25:1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소프라노 클라라김이 축가를 불렀으며 김세윤 박사(풀러신학대학원)가 축사를, 그리고 박형은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임동선 목사가 축도했다.

2부 콘서트는 갓스이미지의 워십댄스공연, 윤주영, 박선민의 듀엣('좁은 길'), 윤국형밴드의 특별연주, 그리고 테너 오위영 목사가 'You Raise Me Up'을 불렀으며 전 출연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했다.

이어 비전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와 만찬시간을 가졌다.

동 교회는 24일과 25일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담임)를 강사로 설립45주년기념 부흥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대학진학 및 학자금 세미나에서 리처드 명 AGM College Planning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학교별 재정보조, 상세히 비교해보라"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대학진학 및 학자금 세미나

토랜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가 주최한 대학진학 및 학자금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 리처드명 대표(AGM College Planning)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명 대표는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먼저 선정해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비교해보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을 우선 선별해 입학사정을 위한 Admission Factor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 대표는 "분류된 Admission Factor의 중요도와 비슷한 유형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에세이와 원서 작성의 중점적인 부분에 치중해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사전 준비해간다면 대학합격률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한 후에도 재정보조지원금을 최대로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자녀가 9학년이나 10학년 진학 시점부터 집중적 관리를 해나가면 대학진학 목표 달성에 더욱 유리할 수 있으며 대학원서 작성이나 편입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리처드명 대표는 "대학학자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학자금 재정보조는 성적과 재능에 근거한다 △수입이 많고 자산이 많은 집안은 재정보조용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유학생들은 재정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학자금 보조 신청은 대학입학에 불리하게 적용한다 △EA나 ED는 재정보조 지원이 낮다" 등 이라 설명했다.

명 대표는 "학비보조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성적이 전교 1등급이기에 성적장학금에 대한 시스템보다 학비보조장학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미 전국 6천여 대학 중 한국인들이 갈만한 학교들은 3천여 개가 있는데, 이 중 130여 사립학교가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해준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UCS 2015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신학박사 1명, 목회학석사 3명 등 총 26명 졸업

UCS United of California Seminary(총장 최아브라함 박사) 2015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는 지난 18일 본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박사(Th.D) 1명(강양규, John Kang)과 목회학석사 3명(이승덕, 이재학, 정상기), 신학사 6명(김성일, 김원덕, 김정숙, 백영자, 연영수, 유영예), 그리고 통신학부 16명(강봉례, 김경숙, 김경희, 김광숙, 김복례, 김춘희, 민귀자, 백봉명, 석승연, 육민수, 윤성신, 이기호, 이윤숙, 이정민, 최사문, 최정직) 등 총 26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UCS 대학교 학장인 최사라 박사의 사회로 기도에 양경선 목사, 성경봉독에 최영원 교수, 설교에 조명환 목사, 특송에 LA여성선교합창단과 천상필 목사의 바이올린 연주, 박사후딩 및 학위수여, 총장 인사말에 총장 최아브라함 박사, 축사 및 권면에 정시우 목사, 송사에 이재학 학우, 답사에 이승덕 전도사에 이어서 5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를 했으며, 명예총장인 김여진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조명환 목사는 "새로운 시작"(수1:7-9)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졸업이 마냥 행복하고 축하만 받는 자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비록 우리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한편, UCS United of California는 지난 2008년 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설립되어 2009년 11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종합대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지난 2014년에 미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I-20 Form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I-20 문의, 213-598-3146)

〈기사제공: UCS〉

2015년도 UCS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군사랑선교회 7월정기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LA 군사랑선교회 이종수 부회장 한국행 송별연

LA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회창 목사) 7월 정기모임은 그간 부회장으로 수고한 이종수 집사의 한국행 송별회로 모였다. 7월 25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 강당에서 열린 모임 1부 예배는 차기학새 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돼 오위영 목사의 기도와 찬양, 최청학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은 후 송금관 목사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가 있었다,

이어 김회창 목사의 인도로 중보기도를 한 후 공상용 전도사의 특송에 이어 이종수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모임은 김명관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애국가 제창 후 친교와 식사시간을 가졌다.

▲문의: (213)453-4572

〈기사제공: LA 군사랑선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소망소사이어티 무료법률상담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무료법률상담을 8월부터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실시한다. 8월 무료법률상담은 7일과 21일이며 참여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상담내용은 일반 법률 관련 분야.

▲문의: (562)977-4580

손봉호 장로 초청 강연회 및 목회자 세미나

LA기윤실과 산돌교회는 한국 기윤실의 설립자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강연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다. LA기윤실 주최 강연회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0일(월) 오후 7시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3130 Wilshire Blvd)에서 갖게 되며 산돌교회 주관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세미나는 8월 11일(화)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산돌교회(8220 Katella Ave., #H, Stanton)에서 갖는다. 목회자 세미나 참여인원은 150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마감한다. 목회자세미나 참가 신청서는 산돌교회 웹사이트(www.isandol.org)에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며 구두로 신청시 참석자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문의: LA기윤실(213)387-1207, 산돌교회(714)901-1700 kiyoungna@hanmail.net

미주예배 컨퍼런스

어노인팅 미니스트리(Anointing)가 주최하는 미주예배 컨퍼런스가 오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미서부 지역에서 열린다. 일정은 △12일(수) 오후 7시 30분 시애틀형제교회 △14일(금) 오후 8시 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16일(주) 오후 5시 오레곤벧엘장로교회 △19일(수) 오후 8시 토렌스조은교회 △20일(목)-22일(토) 오후 7시 LA충현선교교회 △23일(주) 오후 2시 LA충현선교교회.

▲문의: 82-2-574-6305, 3010(한국), anointingm@hanmail.net

달라스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예배

달라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선교예배가 8일(토) 오후 7시 멕시코 메리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재혁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문의: (972)258-0991

남가주사랑의교회 2015 여름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5 여름성령축제를 8월 6일(목)부터 9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 6시10분, 저녁 7시, 주일 1-4부 예배.

▲문의: (714)772-7777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생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213)380-0071, Cell.(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밀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l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8월 9일 '광복 70년 평화통일 기도회'

국내외 140여개 도시서 동시에 열린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9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열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의 목적과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은 "이번 기도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74년 엑스플로74,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선교대회,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2010년 한국교회8·15대성회 등의 연합정신을 계승한다"면서 "한국교회 및 우리 민족 모든 구성원들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 감동 결단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개최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7개 교단이 주최하고 구세군대한본영과 기독교한국루터회 예장고신·합신 등 60여 교단이 참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주요 연합기관과 선교단체도 동참한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은 "통일이라는 의제 앞에선 진영의 논리를 버리고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며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계기, 그리고 통일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 주소서'이며 키워드는 '감사 회개 용서 치유 생명 희망 평화 통일 사랑'이다. 주 설교자는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이며 예장합동과 통합, 기감에서 선정한 각 교단의 설교자 3명도 메시지를 선포한다.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통일 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다짐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리교신학대 백석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한신대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들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평화통일시대를 앞당기는 한국교회 실천강령'도 발표한다. 강령에는 통일기금 마련을 위해 한국교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용서와 화해를 희망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준비위 실무위원장 조성기 목사는 "통일기도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70여 곳의 국내 도시와 미국 뉴욕과 시카고,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 등 70여 곳의 해외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영택 예장통합 총회장, 박무용 예장합동 부총회장, 황수원 한장총 대표회장, 유만석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등도 참석했다

광복 70주년기념 북한선교 연합콘퍼런스

8월 14일 미래목회포럼과 북한선교단체 공동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및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현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린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은 다음달 14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북한선교 연합 콘퍼런스'를 북한선교단체 4곳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목회포럼과 북한·통일선교 실무자들의 모임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통일기도단체인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콘퍼런스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오성훈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장은 "콘퍼런스는 북한 및 통일 사역 실무자들이 모여 한국교회에 북한선교의 구체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교계 북한선교단체 및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서 북한 사역을 논의하는 '연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의 문, 북한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는 광복절 하루 전인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개회예배에서는 이철신 영락교회 목사가 설교하며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황수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맡는다.

발제와 토론 순서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통일의 빗장 파헤치기'에서는 오 회장이 북한선교의 현주소와 대안을 소개한다. 이어 2부 '통일의 빗장 풀어내기'에서는 마요한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이 국내외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강연하며 3부 '통일의 대문 열고 들어가기'에서는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기도회를 이끈다.

이윤재 대표는 "남북한 분단을 극복치 못한 광복은 완전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남북이 뜻을 함께 해 통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한국교회에 북한선교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北지하교회 13년째 지원' 에릭 폴리 목사부부

국내 첫 '조선어·영어 성경' 발간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 사이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자신의 보좌관들이 영어를 배우기 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조선어/쉬운 영어 스터디 성경'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성경은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이 영어를 공부하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된다.

폴리 목사는 "영국의 위클리프 미션어시스트로부터 저작권을 얻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순교자의소리, 신학자, 탈북민 등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며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 등 북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 27권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어(북한어)'와 영어로 성경 각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단어장도 포함돼 있다. 그는 "판매용은 아니다"며 "탈북민과 북한 주민, 이 성경을 북한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교회나 선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 목사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3년부터다. 미국 1500여 기독교 단체와 함께 노숙인, 마약중독자 등 소외계층을 돌보던 그는 꿈속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평소 이런 영적인 꿈을 꾼 적이 없었다"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북한의 지하교인을 섬길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고, 몇 년 뒤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2000년 결혼한 한국인 아내 현숙 폴리 등 우리 가족은 자연스레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탈북민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들이 직접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세계 각지에서 그와 함께 일해 온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를 공개해 왔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북한에 성경 말씀이 담긴 코팅전단지와 MP3플레이어(조선어성경 녹음, 북한식 찬양 및 양육프로그램 수록) 등이 든 '복음풍선'을 날리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등에서 탈북민을 양육하며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도 전한다. 조선어연대기성경, 남북대조성경 등도 출간해 북한 사람들의 성경이해를 돕고 있다(vomkorea.kr).

대한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

도림교회 후원으로 스와힐리어 성경 1만3600부

24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 반포센터. 서울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와 장로 등 20여명과 대한성서공회 관계자들이 컨테이너 문 앞에 쌓여 있는 스와힐리어 성경 1만3600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주여, 이 성경을 통해 에이즈에 걸린 탄자니아 국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에이즈 감염에 노출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적인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대한성서공회가 주최한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기증 감사예배' 후 컨테이너에 실린 성경은 다음달 3일 부산항을 출발해 오는 9월 10일 탄자니아의 다레살렘 항구에 도착될 예정이다. 이어 탄자니아성서공회에 인계돼 그곳의 에이즈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탄자니아는 총인구 4900만여명 중 100만여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감염 경로 및 결과, 예방법 등 에이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않아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다. 탄자니아성서공회는 그 원인이 영적으로 깨우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성경 기증은 도림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성경기증 감사예배에서 손인웅(덕수교회 원로목사) 대한성서공회 부이사장은 "도림교회가 성전을 건축 중이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텐데도 탄자니아를 위해 성경을 기증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의현 대한성서공회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이 탄자니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라며 "탄자니아는 물론 목회자들조차 성경이 없어 손으로 베껴서 사용해야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많은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명철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의 설교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정, 나라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며 "이번에 보낸 성경이 탄자니아 국민을 살리고 탄자니아를 새롭게 하는 보석과 같은 선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성도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면, 결국 영적 조명을 받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신지식이 곧 영지(靈知, gnosis)이다. "사람이 아들을 믿을 수 있으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교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의해 우리를 믿음에서 지식으로 옮기시기 때문이다. 올바른 영지주의적 규율을 따르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그 진리'를 통해 진리를 아는 직관 이해이다"(양탄자 V.i (1)).

클레멘트는 자신의 영지주의를 올바른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는 향후 교회사에 큰 줄기로 남게 된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후대에 남긴 것이다. 그는 성도가 로고스를 통해 영적 조명을 받은 후의 단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합일'이란 개념을 소개하였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수도사들과 기독교 영성가들의 신학과 생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과 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믿음과 지식과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때 발생한다... 우리가 구원의 훈련으로서 그릇된 행위의 결과로 겪는 모든 징벌과 징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릴 생명, 신들과 함께 누릴 생명에 대해서 가르친다"(양탄자, VII. x (56)).

클레멘트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관상기도'의 원리와 일치한다. 그는 철학으로 복음을 풀어가려고 하였기에, 결국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 교제로부터 멀어져간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갈라디아서 1:11-24

'순수한 복음'이란 말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복음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를 쉽게 접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중심이 되는 '주어진 복음'보다, 우리가 갈망하며 '원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복음의 형태를 수정하게 하는 모든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부하는 일이다.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혹시 상대를 배려하여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또는 상대와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주어진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의 변증은 복음위에 굳게 설 때 가능하다.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잘 이해하자.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이는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신규 에이즈 환자 사상 최대" …감염원인 쉬쉬

정부, 2011년까지 발표하던 동성간 성접촉 수치 침묵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22일 '2014 에이즈 신고 현황'을 발표했지만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전문가들은 에이즈를 막기 위해선 미국 일본처럼 동성애와 에이즈 간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2014년 신고된 내국인 중 감염경로에 대해 응답한 대부분(99.8%)이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발표하면서도 2011년까지 발표했던 동성 간 성접촉에 따른 감염인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관계자는 23일 "여성의 성기 점막이 남성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여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한국에선 남성 감염자수가 훨씬 많다"면서 "이는 에이즈가 주로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 때문에 감염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역학조사를 할 때 감염자들은 '이성애를 통해 감염됐다'고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이후 동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감염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조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허위 답변으로 통계가 왜곡돼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정확한 통계수치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좋다 나쁘다,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성교육 기관이 아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고위험 그룹이며 동성 간 성접촉에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알리고 있으며, 예방대책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에이즈정보'에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란 말이 없다. 대신 '감염인과의 성접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일본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일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들은 항문성교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에 걸리거나 전염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CDC는 "2013년 미국에서 13세 이상 에이즈 확진을 받은 사람은 3만7887명이며, 이 중 게이와 양성애 남성이 81%(3만689명)를 차지했다" 또 "2011년 13-24세 청소년·청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5%는 동성애에 의해 감염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NIID)도 2013년 신규 감염자의 71%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다.

민성길 전 연세대 교수는 "CDC는 2007~2010년 에이즈 감염자 중 대다수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이들을 다시 백인·흑인·히스패닉 동성애자로 분류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통계부터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대전시 교계 강력 반발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대전지역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성애자들은 양성평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장이 나서서 동성애자 보호·지원='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2001년 처음 제정됐으며, 지난달 개정됐다. 문제의 조항은 제3조로 '대전시장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의 보호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전지역 동성애자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제3조 제2항)은 동성애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조례에 따라 동성애 인권교육은 물론 퀴어문화축제 같은 동성애자들의 축제도 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전시는 아예 '성소수자 지원'(제22조) 항목까지 만들어 놨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성애 차별철폐 등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행정·재정지원을 하고 동성애 보호 단체에 포상까지 할 수 있게 해 놨다.

◇입법예고와 달리 법무담당관실이 문구 삽입=문제는 조례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게 한다'(제2조)라고 돼 있을 뿐 동성애자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기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성평등'으로 모두 교체하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입법예고 때까지만 해도 문제 조항이 없었지만 시 법무담당관실이 해당 문구를 추가했다. 시의회는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사실을 확인한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홀리클럽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동성애자 지원방안이 명시된 조례를 그대로 두면 전례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폐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 때 지역 여성단체들이 '제3의 성'을 넣자고 요구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밖에 없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조항을 넣게 됐다"면서 "동성애 관련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대로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지 어떻게 시 법무담당관실이 중간에 끼어들어 임의로 동성애자 지원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느냐"면서 "조례에는 동성애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장의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기총, '동성결혼 반대' 2만1404명 탄원서 제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7일 '동성결혼 합법 요구 반대 탄원 서명'에 동참한 2만1404명의 탄원서(사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동성애자인 김조광수·김승환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한 곳이다. 이들은 2013년 9월 남남(男男) 결혼식을 가진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대한민국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기독교의 신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추가로 서명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동성애·동성결혼의 법제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 5만5000장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혼인 가치관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3)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비무슬림은 노예 취급...전세계 이슬람화가 의무
초기엔 대화 · 공공기관 변화 · 위협과 폭력 동원

이슬람의 죄과, 구원론, 종말관

이슬람이 기독교와 크게 신학적으로 다른 것은 죄관(罪觀)이다. 이슬람에는 원죄사상이 없음으로 속죄사상도 없다. 코란에 예수(이사)가 19회 등장하지만 선지자 혹은 메신저이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천당층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 원죄 사상이 없지만 동양 문화인 수치문화를 발전시켰다. 무슬림에게 수치는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자살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후심판 때 천사가 모든 사람들을 저울로 달아서 선행의 추가 무거우면 천국으로, 악행의 추가 무거우면 지옥으로 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집트의 신화에도 이와 유사한 심판 사상이 있는데, 이집트 신화에는 뒤에 천사가 숨어서 저울을 몰래 조종하여 때로는 선의 추가 무겁도록 돕는데, 이슬람에게는 이러한 천사는 없는 것 같다. 더 엄격한 셈이다.

종말의 최후 심판 때는 신이 선과 악으로 분리하며 구세주가 등장하지만 동시에 가짜 구세주도 등장함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국가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슬람 테러범들의 자살행위에 이슬람은 결코 자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명예로운 순교이다. 하디스에 위하면 순교한 자는 구원이 절대 보장되어 천국의 제일 좋은 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72명의 미인들로부터 술과 고기의 대접을 받는 곳이다. 천국에 가면 금반지에 비단옷을 입는다.

최근 여자가 자폭테러로 죽었다. 이것을 두고 이슬람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여자가 천국에 간다는 정확한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자살테러, 즉 순교를 하느냐고.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쓴 여성해방을 요구하는 저서에 보면, 공주의 어머니가 죽을 때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고 한다. 자신은 천국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였다. 반면 지옥에는 19명의 당번이 지키어 도망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고생한다고 가르친다.

극단적 이슬람 종말론

극단적 이슬람의 종말론이 있는데, 후에 언급할 ISIS의 중요한 교리가 된다. 이 종말론은 종말에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알라가 유대인은 다 죽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의 메시야가 재림, 이슬람이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자동적으로 이슬람 신자, 특히 시아파 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콤에 있는 신학교의 한 이맘이 필자에게 말한 내용이다.

3. 이슬람의 비판적 고찰

차용종교이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하늘에서 특별히 떨어진 종교라서 다른 종교위에 사상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많은 것을 차용한 흔적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먼저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영국의 이슬람 전문가 몽고메리 와트는 이슬람의 알라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의 차용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부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었다고 한다. 이들을 하니-후라고 한다. "하나-후란 무함마드 이전의 메카의 일신교"라는 것이다. 후지모토 카츠지는 이것을 "막연한 일신교"로 표현한다. 카렌 암스트롱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말한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일신론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견해이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저울에 다는 내용, 얼굴을 땅에 대로 절하는 것은 동방정교회나 콥틱교회가 실시한 의식이다.

우월주의 종교사상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하여 굉장히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타종교인 비무슬림을 노예로 보기도 하는데, IS는 이것을 잘 증명해주었다. IS는 이라크의 야지디 여신도들을 체포하여 성폭행하면서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예"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탈출한 야지디 여신도가 일본기자에게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작년 8월 이라크의 야지디 신도들 지역을 점령하면서 노예제 부활을 선언하였다고 보도한다. 이 여자들이 탈출하게 된 것은 간부들 부인들이 질투하여 도망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다수일 때 무슬림은 항상 지배자라는 사상을 실행하였다. 소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딤미"(보호받는 소수자) 취급하였다. 지금도 이슬람국가나 불교국가 주민등록증은 종교를 명기한다.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도리어 차별을 당한다. 코란은 태초부터 무슬림들이 가장 최고의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스릴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슬람이 다른 종교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가르친다.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시어 모든 다른 종교위에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수라3:110).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에게 축복이 더했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악한 자들이더라"(수라3:110).

아울러 비무슬림들은 열등하다고 가르친다(dhimmitude). 고전 이슬람사상은 비무슬림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가르친다.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에게 겸손, 자기부인, 감사를 해야 한다.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설립한 예를 따르면 이슬람은 종교, 정치, 군사, 법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슬람 공동체 설립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과정이다. 모든 분야는 이슬람의 체계를 따르도록 전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슬람은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 무슬림은 이슬람화((Islamization)를 종교적 의무로 생각하면서 사과(apology)나 절대 의심을 하지 않는다. 다음의 글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어디에 네가 있든지, 어느 나라에 네가 살든지, 너는 잘못된 정부의 기초를 바꾸는데 힘써야 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잡아라... 이 투쟁의 이름은 지하드(이슬람교 전파를 위해 벌여야 하는 이교도와의 전쟁을 뜻하는 말)이다"(Maududi, 무슬림이 되자).

"우리 입장은 분명하여 아무 것도 사과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 중의 최고이고 이 나라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교리이다."

위의 인용문은 Anan Altikriti 이라는 무슬림 지도자가 멜본대학 무슬림 청년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인 이슬람화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 대화로부터 지하드(성스러운 전쟁)까지 다양하다. 초기 단계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며 다음은 공공 기관을 변화시키고 설득한다. 다음 단계는 위협과 폭력을 동원한다.

이메일: hjjun01@hanmail.net

세계종교뉴스

유엔안보리, 이란 핵협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상정된 결의안을 반대없이 승인했다. 2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타결된 JCPOA를 유엔이 공식 지지·추인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 결의안은 종료된다. 제재 종료 시점은 JCPOA에서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 명명된 시점으로,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엔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란은 앞으로 항목에 따라 10-25년 간 자국의 핵시설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미국 의회로 19일 송부됐고, 미 의회는 60일간 검토기간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이란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에서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합의안 이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뜨는 이란, 지는 사우디…
미국·이란 핵타결 후 달라지는 중동 패권지도

이란 핵 협상 결과는 중동의 미래를 어떻게 변모시켜 놓을까.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이란이 기존의 시아파 맹주라는 제한적 위상에서 벗어나 '중동의 패권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동에서 새로운 외교적 합종연횡이 잇따르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도 급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19일 이란 핵 협상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이란 없이는 중동의 제반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서방국가들이 인정해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란은 중동의 주요 현안에 거의 다 개입돼 있다. 현재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시아파 정권은 이란의 자금 및 군사 지원이 없으면 언제든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예멘의 정부군을 수도에서 몰아낸 후티 반군 역시 이란이 배후조종하고 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의 현 시아파 정권도 이란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 이란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척결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한 데 이어 지금은 미국과 공동작전까지 펼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이란의 개입이 주로 시아파 맹주로서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핵 협상 이후 이란은 패권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7일자 분석에서 "이란이 거둔 핵 협상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무기 도입 제재가 풀린다는 점"이라며 "이란이 미사일 도입 등을 통해 군사강국으로 변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공격적으로 중동의 현안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면으로 계속〉

이란이 개입된 중동의 주요 현안

시리아 내전 사태	바샤르 알 아사드 시아파 정권에 자금 및 무기지원
예멘 내전 사태	시아파인 후티 반군에 군사지원
'이슬람국가(IS)' 척결 작전	시아파가 집권한 이라크에 파병해 미군과 공동작전 수행 중
레바논 '헤즈볼라' 지원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자금 및 무기지원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원	무장단체 하마스에 자금 및 무기지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47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편지

목요기도운동

한국을 유럽처럼 만드시겠습니까?

2015년 1월 7일, 새해 벽두에 시민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언론사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풍자전문 주간지인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 풍자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무장한 무슬림들이 총기를 난사하여 편집장 등 12명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인, 종교 할 것 없이 성역 없는 비판과 풍자를 해왔던 샤를리 에브도는 최근 편집장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싣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15.7.17.연합뉴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발달한 서구 유럽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만큼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앞다퉈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정상들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며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때문에 골치를 앓으며, 어떻게든 이슬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부 주도의 할랄산업 육성과 무슬림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이슬람 금융인 수쿠크 도입 시도,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밖에 없는 다문화지원 정책 등이 그것입니다.

이슬람은 중동이나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슬람을 바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에서의 혼란을 우리도 곧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을 유럽처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을 알고 대처하시겠습니까?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슬람권 선교학교"(강사 이만석, 유해석, 한희순 선교사)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 그리고 17억 무슬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립니다.

이슬람권을 위한 목요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17)

1.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 복음전도자들을 위해(롬 8:35-37)

-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이슬람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 생명의 위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슬람권 성도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승리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핍박하던 자들이 놀라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 신성모독 혐의로 오랜 기간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파키스탄 아시아 비비와 가족들을 붙잡아 주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소서. 파키스탄 성도들이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에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추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더 많은 일군들이 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소서.

-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2. 무슬림들, 이슬람지도자들, 국가들을 위해(시2:1-3) (요 10:10)

- 세계 역사와 국제 정세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IS(이슬람국가)의 중동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열방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소서!

-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 IS와 보코하람 등이 라마단 기간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저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만행을 그치게 하여 주소서! 배후에 역사하는 살인과 어둠의 세력이 묶이게 하소서!

- 무슬림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소서.

- 다음 세대를 세뇌하여 살인 무기로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을 파하여 주소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게서 여성과 아동이 보호되게 하시고, 인권유린과 학대가 그치게 하여 주소서.

-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과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전쟁 지역에서 무고한 피흘림이 그치게 하시고, 난민들이 보호받게 하시며, 가난해진 주민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IS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보코하람의 아부바카르 셰카우, 알카에다의 아이만 알 자와히리, 탈레반의 무함마드 오마르, 하마스의 칼리드 마샤알, 알샤바브의 아마드 우마르가 변화되게 하소서.

3. 이슬람화 저지와 중보기도운동 위해(시72:1) (갈5:1)

- 위정자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소서!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식품과 무슬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들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해가 된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계의 지도자들과 언론매체가 이슬람의 속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진실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 위정자들이 다문화 사회가 된 유럽과 미국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고 합당한 다문화 정책으로 건강하고 견실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여름철 각 교회와 선교단체의 단기 선교와 아웃리치 기간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뤄지게 하소서!

-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운동이 전국과 세계로 퍼져가게 하소서!

세계종교뉴스

〈13면에서 계속〉

아울러 8100만 인구대국인 이란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경우 마치 중국처럼 군사와 경제 양축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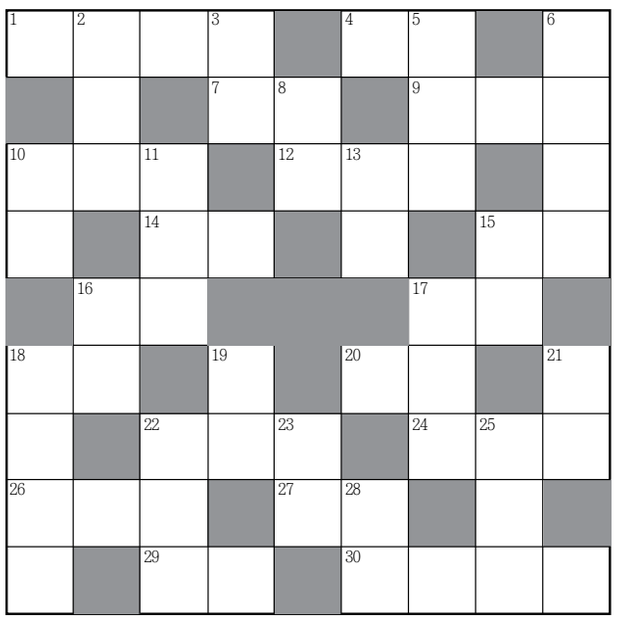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중동의 '외교 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4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이란이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터키도 이란에 그런 역할을 주문해 왔다"고 전했다. 이란의 중재로 전 세계의 가장 골치 아픈 분쟁이 종식될 경우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얻을 '외교적 자산'이 아주 클 것이라고 가디언은 예상했다.

이란의 부상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사우디 간 유대도 손상될 전망이다. 사우디 국영방송 채널1의 유명 앵커인 무함마드 알모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의 유대가 돈독해지면 사우디가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중국과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에서의 이런 변화는 아시아 외교도 변화시킬 수 있다. FP는 "미국은 그동안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서 지불해 온 비용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고 그런 불만이 이란과의 '딜(협상)'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도 바꿔놓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일본·인도가 지금의 사우디나 이스라엘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표 : 중동의 주요 현안에 거의 다 개입되어 있는 이란

십자말 • Cross Word (9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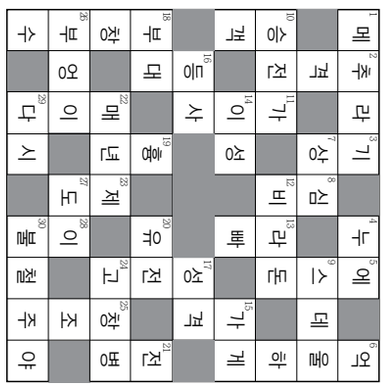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꿩과의 새(출16:13).
4. 누에나방의 애벌레(명).
7. 마음을 상함(시147:3).
9. 광야시대 르우벤의 족장(민7:30).
10. 전쟁에서 이긴 후 기쁘고 의기양양하게 부르는 노래(출32:18).
12. 사사 압돈과 다윗의 용사 브나야의 고향(삿12:15).
14. 이치에 따라 사리를 분별하는 성품(유1:10).
15. 자그마한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 점포(명).
16. 등사판으로 글씨를 박음(신17:18).
17. 각 개인에게 특유한 감정, 의지, 행동 등의 경향(명)
18. 일부의 군대(삼상13:23).
20. 끼쳐 내려옴(막7:8).
22.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삼상1:21).
24. 배만 땡땡 붓고 내부는 비어있는 창 중의 하나(눅14:2).
26. 올빼미 과의 새(사34:15).
27. 하맛 왕인데 다윗 왕에게 축의를 전한 일이 있다(삼하8:9).
29. 한번 더. 또(요8:8).
30. 어떤 일에 골몰하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명).

<세로 푸는 열쇠>

2. 뒤쫓아 가며 공격하는 싸움(명).
3.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변화의 현상(눅12:56).
5. 므힐의 아들(대상4:12).
6.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 말며…(신24:17).
8. 마음의 비석(고후3:3).
10. 배 또는 차 따위에 타는 사람(겔27:34).
11. 본래 로마 왕 줄리어스의 성(姓)이었다(눅2:1).
13. 예루살렘의 고지대에 있는 유다의 한 촌락(수15:60).
15. 화폐로써 나타낸 상품의 가치. 값(마27:9).
16. 미리 갖추어 두고 기다림(막3:9).
17. 예배당 창고(마27:6).
18.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잘 따르는 것이 부부사이의 도리라는 말(명).
19. 농작물이 잘 되지 않은 해(창26:1).
21. 번철에 지진 널찍하고 둥근 떡(호7:8).
22. 매어지다. 남에게 걸려 딸리다(창27:40).
23. 마련한 법도(왕상7:28).
25. 조물주.28. 잘 때에 몸을 덮기 위한 침구(잠7:16).

십자말 정답



회비무료, 점심제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1 ·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2 ·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3 ·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 장소: 휴스톤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uston, TX 77055

강사: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구약, 신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4)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 본문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relationship/ relationship building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교육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전 2:7-12 "교육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
가르침의 핵심내용을 실천함으로 모범 보여야

본문은 사역자들이 그 섬기는 자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아기를 기를 때처럼 부드럽게 돌보며, 또한 사랑하되 심지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른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는 우리에게 한걸음 더 나아간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자가 단지 가르침을 행하는 일을 넘어서 피교육자와의 관계를 다지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행해지는 교수는 피교육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육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의 존재가 피교육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면 교육자가 말하고 가르치는 바 또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여기기 힘들며 그 참된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의 가르침이야말로 피교육자에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피교육자들의 인격과 삶에 상관이 있는 교육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자들이 피교육자들과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일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일이며, 이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피교육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섬기는 지체들에게 열어주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의 핵심내용들을 몸소 실천함으로 모범을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깊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일정한 틀의 가르침과 그 내용들은 생명력을 얻고 피교육자의 삶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섬기는 유스그룹 학생들에게 섬김에 대하여 꾸준히 설교하고 가르치며 섬김의 삶에 대해,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던 한 사역자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사역자는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관여하거나, 자신의 삶을 나누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은 허공을 떠돌다 그냥 사그러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교육자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한 가르침과 그것이 삶에 체화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적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그가 10명의 유스 아이들과 함께 1주일 동안 시카고 시내 빈민지역을 섬기는 미션 트립을 진행한다고 합시다.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말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여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그동안 강조했던 "섬김"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그 때 그 가르침은 생명력을 얻고, 진정 살아있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본을 받아 빈민지역과 서로를 섬기는 실천을 행하며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가 그 자녀들과 관계 맺는 이미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지체들을 교육하고 섬길 때,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아끼듯이 하며, 아버지처럼 위로하고 훈계도 주며 용기를 주며 관계를 다지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르치는 바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이 되고, 삶을 나누고 실천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특별한 것인 만큼 사역자들과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사랑할 이유(벧전1:22-25)찬97장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합니까? 첫째, 깨끗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22).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가집니다. 그 영혼은 거짓 없는 형제사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23).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 생명력은 관계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셋째,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24-25). 성령으로 시작해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세계에 발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펼쳐지는 복된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화 거룩한 제사장(벧전2:1-4)찬313장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장, 제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일입니다(1). 다른 하나는 사모하는 것입니다(2). 순전한 신령한 젖은 성경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런 생활은 한마디로 내 속의 육과 싸우는 일입니다. 육욕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꿀과 젖을 맛보기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동성결혼법으로 우리 마음이 무거운 때에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가정부터 든든해야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풀려갑니다.

수 신약의 언약백성(벧전2:5-8)찬221장

사도 베드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성격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째, 교회는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본 교회는 구약언약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음을 말합니다. 시온에 둔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는 언약을 그의 피로 성취하셨습니다(6).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곧,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위에 세워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6). 성전으로 비유된 교회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인 성경입니다(엡 2:20). 이 말은 교회의 머리와 기초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언약백성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치는 돌이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7-8). 새 언약백성인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갑시다.

목 그리스도인이란?(벧전2:9-10)찬403장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백성의 신분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명을 위해 사는 자임을 베드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이 세상에서 메시야적 사명을 이룰 자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적 사명의 실체인 구속적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합니다. 셋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이란 과정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속에서 기어코 그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금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2:11-17)찬197장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합니다(11). 거듭난 깨끗한 영혼을 더럽히려는 원수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육입니다. 이것과 늘 싸우는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선행을 나타내어야 합니다(12-15). 개인의 경건은 이웃이나 어떤 제도 속에서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고 인내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막아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가야합니다. 셋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16-17). 그 경건은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 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이웃 사랑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길입니다.

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벧전2:18-21)찬499장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상 생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되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18-19).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의와 사랑과 진실은 이런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둘째, 잘못하여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합니다(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셋째,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찬송해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본을 따를 때 부활의 강력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은 약해 보이나 이후는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 길을 따릅시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상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난 생각 깊은 사람...네가 알아주기 원해"

허핑턴포스트, 결정 못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성격 특성 보도

스시냐 BBQ냐? 종이냐 플라스틱이냐? 직장을 그만두느냐, 승진을 기다리느냐?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선택도 있다. 명백한 선택도 있고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선택도 있다. 그러나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택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도저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무척 힘들 수 있지만(결정을 못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 사과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10가지를 추렸다(10 Things Every Indecisive Person Wants You To Know).

자연스런 흐름 따르며 마음속부터 타인 즐겁게
민감하며 타인 의견 경청·생각 깊고 큰 결정은 정신적 부담
결정내리고도 고민...효율적 결정은 자랑스러워

1.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걸 좋아한다.

코미디 영화? 스릴러? 우린 그걸 놓고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려한다.

2.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남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누구도 언짢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주말 스케줄에 관한 결정이든, 직장을 옮기는 것 같은 중요한 일이든 마찬가지다. 모두가 평화로울 때 조화가 이뤄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원칙에 포함시키는 걸 잊지 않아야 할 뿐이다.

3.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세세한 것들까지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더 힘들 수 있다. HSP 연구자 일레인 아론이 허핑턴포스트에서 했던 말이다.

4. 우리는 남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 우리의 의견을 정한다.

엄마, 아빠, 할머니,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까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5. 우리는 생각이 깊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무척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다. 이론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가끔 이런 심사숙고가 우리의 발등을 찍는다. 연구에 의하면 결정을 못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과 연관이 있는데, 건강에 좋지는 않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과도 연관될 수 있다.

6. 큰 결정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거나, 새 직업을 갖는 등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생각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담을 많이 준다. 아주 힘들 때도 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시간이 없다면 직감을 믿어라. 연구에 의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하는 것보다 감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7. 저녁 식사할 곳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햄버거식당이나, 그때 그 아시아 퓨전 음식점이나, 저 이탈리아 식당은 싫어." 원하지 않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절반은 정한 거 맞지?

8.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한참 뒤에 고민할 때가 있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걸 무척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 결과를 아는 쪽을 선호한다(살다보면 안 그럴 때도 많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다).

9. 우린 장단점 목록을 아주 좋아한다.

달리기의 장점: 기분과 몸에 좋다. 단점: 비가 오고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연속 방영하고 있다.

10. 우리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는 조금씩 더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파티에 어떤 감자칩을 사갈까 결정하는 아주 짧은 순간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연습하다보면 잘하게 되는 것 아닌가?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결정을 못 내릴 때 대신 책임져 줘서 고맙다.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이런 것이다. "너 결정 잘하는 사람이 될래, 잘 못하는 사람이 될래?"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당장 결정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대답할 거다. 부디 이것만은 알아 달라!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즐거움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2면에서 계속〉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맏딸은 옆에 끼고, 아들들은 내 어깨에 걸쳐 있거나 소파에 매달리고, 어린 딸아이는 내 한쪽 무릎 위에 앉고, 아기는 무릎에 뉘인 채 책을 읽어줬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긴박감 넘치는 서사 '보물섬'을 읽어줄 때면, 남편도 수트와 타이 차림 그대로 내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동문학상인 뉴베리상을 수상한 케이트 디커밀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책을 읽어주면 우리는 긴장을 스르르 푼다"면서 "그 순간 우리는 따뜻함과 빛 속에서 공존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디커밀로의 말에 동의한다.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굿나잇 문(Goodnight Moon)'을 읽어주면 아기는 완전히 몰입한 표정으로 책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생쥐를 찾아봐'라고 말하면 아기는 손가락을 뻗어 페이지를 진지하게 만진다. 그 순간 엄마와 아기 둘 다 따뜻함 속에 공존한다.

책 읽어주기의 즐거움은 아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자체가 훌륭하면 십대 청소년들(그리고 남편들)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낭독을 그만두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대체할 수 없는 선물, 문화적 토양, 언어의 묘미, 스토리텔링 유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선사할 수 있다"

낭독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문학이라는 더 큰 세계로 진입하는 웅장한 입구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보다 정교한 문학책을 스스로 읽는 사람으로 커간다.

그런데 이런 가설을 이제 쉽게 주장하기 힘들다.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이 흔하게 보급된 시대에 아이들에게 자주 그리고 길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어른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학으로 가는 관문'을 굳이 통과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책을 정말 많이 읽던 아이를 한 명 안다. 그 아이는 노트북이라는 신세계를 알게 된 이후 거의 4년 동안 소설책을 읽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우리 아이들도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전자 매체에 홀려버리기 시작했다. 내가 무책임한 엄마여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아들들의 유년기를 기형적으로 바꿔버렸어"라고 한 친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던 적이 있다.

책과 인터넷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인터넷을 택하는 아이들이 많다. 미디어 소비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리 만들어놓은 온라인 세계를 스크롤 하는 것과 헌신적인 어른의 관심을 받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사람이 읽어주는 이야기를 고르는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연설문 작성자로 활동하는 브리트니 볼드윈은 휴스턴 고향집에서 아버지가 사남매에게 '호빗'을 읽어줬던 경험을 기억한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상상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나의 빛나는 롤 모델인 리사는 영화 제작자이기 때문에 신기술이나 스크린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사의 생각은 이렇다.

"머릿속에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은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시각효과가 강렬한 스토리텔링을 숟가락으로 받아먹는 요즘 아이들은 눈을 감고 어떤 세계를 상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어떤 냄새가 날까?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이들이 디즈니 버전으로 동화를 접하기 전에 원작을 미리 읽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만화영화로 각색한 버전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리 포터'를 스스로 읽기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 2학년은 영화를 먼저 몇 장면이라도 접하게 된다. 그래서 해리 포터 시리즈 1권 첫 장을 펼치기 전부터 '맥고나걸 교수' 하면 매기 스미스를 자동으로 연상시킨다.

이쯤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질 것 같다. 아이패드가 왜 나쁜데?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인터렉티브 동화도 있는데? 그럼 오디오북은? 그것도 나빠?

아이패드와 오디오북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따뜻하게 팔베개를 해줄 수도 없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특정한 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알지도 못한다.

녹음된 이야기는 아이의 질문에 답할 수도 없으며 아이의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포착하지도 못한다.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 잠시 낭독을 멈추고 뜻을 설명해주지도 못한다. 아이가 외우고 싶어 하는 구절을 다시 읽어주지도 못한다.

책 읽어주기가 사라지면서 어른도 아이도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많다. 멋진 삽화를 볼 수 없다. 특이한 어휘를 듣지 못한다. 흥미진진한 서사를 접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른들도 잃는 게 있다. 아이와 친밀하게 연결된 상태로 서로 장난치는 소중한 순간을 잃어버린다. 부모가 좋아하는 책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기회를 놓친다.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문학의 관문'으로 돌아가는 왕복표를 받는다. 동화, 북유럽 신화, 오디세우스 영웅담 등 어른이 되면 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의 세계로 말이다.

45분에서 1시간 동안 어른은 아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을, 문화적 토양을, 언어의 묘미를, 스토리텔링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선사할 수 있다.

1시간이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1시간 후에 각자가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미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을 테니까.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제2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자녀 세미나

강사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 강사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 강사 설동주 목사 과천약수교회 / 강사 오영택 목사 하늘비전교회 / 강사 임준식 목사 목양교회 / 강사 이석우 목사 늘푸른진건교회 / 강사 심웅기 목사 축복교회 / 강사 박태남 목사 벧엘교회 / 강사 문강원 목사 원천교회 / 강사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 강사 다니엘김 선교사 JGM대표 /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 강사 백효선 목사 청주금식수양관 / 강사 정삼숙 사모 정학봉 목사 사모 / 강사 하귀선 선교사 세계터미널선교회 / 강사 유은성 전도사 CCM 가수 / 강사 설동욱 목사 서울예정교회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세미나 조직

총재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서울예정교회 / 실무회장 김찬영 목사 보람교회 /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 서울소망교회 / 준비위원장 한재근 목사 충만교회 / 진행위원장 이종윤 목사 황진교회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308-1
TEL (02)435-4062, FAX (02)2207-8591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 일 시 : 2015. 7. 27(월) 낮 12시~7. 30(목) 오후 2시 (첫날 낮 12~1시까지 점심제공)
• 장 소 : 서울예정교회 (담임 설동욱 목사) ※중앙선·경춘선·7호선 상봉역 7번출구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308-1 ☎ 02-435-0541~4
• 대 상 : 목회자사모
• 등 록 : 등록비·숙식 전액 무료
·전화로 접수후 접수번호 수령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도구 및 개인 휴대품 준비
• 접수 및 문의 : 목회자사모신문 02)2207-8504~5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02)435-4062
※자세한 사항은 www.samonews.kr 참조하세요
• 주 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목회자사모신문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 후 원 CTS 기독교TV CBS febc 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
극동방송 특별공개방송
경품

▲키보드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한일월드필레오정수기 ▲보약

제23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중·고등생
참석자 중 추첨하여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 일 시 : 2015. 8. 10(월) 오후 2시~12(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예정교회 (담임 설동욱 목사) ※중앙선·경춘선·7호선 상봉역 7번출구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308-1 ☎ 02-435-0541~4
• 대 상 : 중·고등학생 목회자자녀
• 등 록 : 60,000원 (7월 31일 이후 65,000원)
·입금계좌 : 국민 038-21-0916-354 예금주 : 설동욱(지역복음화)
*온라인 입금후 전화로 접수 확인바람
• 접수 및 문의 : 목회자사모신문 02)2207-8504~5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02)435-4062
※자세한 사항은 www.samonews.kr 참조하세요
• 주 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목회자사모신문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 후 원 CTS 기독교TV CBS febc 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

제24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20세이상
• 일 시 : 2015. 8. 13(목) 오후 2시~15(토)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예정교회 (담임 설동욱 목사) ※중앙선·경춘선·7호선 상봉역 7번출구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308-1 ☎ 02-435-0541~4
• 대 상 : 20세 이상 목회자자녀
• 등 록 : 60,000원 (7월 31일 이후 65,000원)
·입금계좌 : 국민 038-21-0916-354 예금주 : 설동욱(지역복음화)
*온라인 입금후 전화로 접수 확인바람
• 접수 및 문의 : 목회자사모신문 02)2207-8504~5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02)435-4062
※자세한 사항은 www.samonews.kr 참조하세요
• 주 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목회자사모신문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 후 원 CTS 기독교TV CBS febc 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